

주 영 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에 관한 연구
- 조각보 수업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김 효 주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에 관한 연구

- 조각보 수업을 중심으로 -

주 영 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김 효 주

인 준 서

김효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논문개요

해외 각지에서 조각보 전시회가 잇따라 개최되는 등 외국인들의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일회적인 것이 아닌, 우리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이해로 이끌기 위해서 조각보 교육에도 학습자들의 요구와 수업내용을 분석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교육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규방공예(조각보) 수업의 경험이 있는 10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에 대한 경험, 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 교육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례자의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인식 및 수강경험,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운영에 대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에 도착한 후 한국문화와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여성관련 공예, 도자기, 공연예술, 전통예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각보는 자국의 킨트공예와 비슷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의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고 답하였다. 대다수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이 후 검색 시 사용할 자료검색매체는 인터넷과 책을 선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은 이전에 규방공예(조각보)의 수강경험이 없었으나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배움의 통로로 생각하여 수업을 택했다고 답하였다.

가장 흥미 있는 수업주제에 관하여 연구대상자들은 조각보와 관련된 역사적 지식이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수업과 관련된 외부견학을 선택하였다.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느질기법과 속도, 재료선택 등을 꼽았으며, 작품과 관련된 한국의 풍습과 문화에 대한 설명, 조각보의 예술성에 대해 앞으로 더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단순히 공예품을 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장소의 방문, 동호회나 전시활동 등을 함으로써 한국문화를 익히는 기회를 가지길 원하는 연구대상자들이 많았다.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한과정당 12주, 1회에 2~3시간의 수업이 적당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규모면에서는 소규모, 지역적으로는 강북지역을 선호하였다. 규방공예(조각보)강사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는 ‘좋은 성품’, ‘언어능력’, ‘전문지식’의 순서로 꼽았으며, 원하는 강사의 성품으로는 인내심과 수강자에 대한 배려 및 소통능력을 선택하였다. 강의 시 보조도구로는 견본, 영어교안, 인터넷 자료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효과적인 교육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편안한 분위기, 밝은 조명, 의자와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익히는 매개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방공예 이해’, ‘규방공예 체험’, ‘규방공예·문화비교 수업’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안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영역의 수업을 기초반과 연구반으로 나눈 수업계획안을 제시하여 향후 이루어질 외국인의 전통규방공예(조각보)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들의 교육내용과 운영에 대한 요구도 조사와 그에 따른 규방공예(조각보) 교육방안의 예를 제시하여 조각보 교육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 데 의의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한국의 규방공예	4
1) 규방공예의 개념	4
2) 규방공예의 분류	5
2. 전통보자기	8
1) 보자기의 유래와 역사	8
2) 보자기의 용도와 분류	13
3. 규방공예 교육의 현황	19
1) 국내 규방공예 교육의 실태	19
2) 국외 규방공예 교육의 실태	29
4. 선행연구	33
III. 연구방법	38
1. 연구문제	38
2. 연구대상	38
1) 연구대상자의 선정	38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1

3. 조사 및 분석 방법	43
1) 면접조사	43
2) 자료분석	44
IV. 연구결과 및 해석	45
1. 규방공예에 대한 인식	45
1) 한국 전통문화 및 공예에 대한 관심	45
2)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경험과 관심	47
3)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수강 경험과 인식	49
2. 규방공예 교육에 대한 요구	53
1) 교육 운영에 대한 요구	53
2)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58
V.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63
1. 교육 목표	63
2. 교육 운영	64
3. 교육 내용	66
1) 규방공예 이해 수업	67
2) 규방공예 체험 수업	72
3) 규방공예·문화비교 수업	76
4)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수업 계획	81

VI. 결론 및 제언 84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1> 풍속화에 등장하는 보자기	11
<표 II-2> 사용 계층에 따른 전통 보자기의 분류	14
<표 II-3> 용도에 따른 전통 보자기의 분류	16
<표 II-4> 형태에 따른 전통 보자기의 분류	17
<표 II-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규방공예 교육	21
<표 II-6> 전통문화 교육전문기관 및 개인공방의 규방공예 교육	22
<표 II-7>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규방공예 교육	23
<표 II-8> 국내 외국인 대상의 규방공예교육	24
<표 II-9> 강릉원주대학교 규방공예 교육내용	25
<표 II-10> 한국예절문화원 규방공예 교육내용	26
<표 II-11> 경산시 문화회관 규방공예 교육내용	27
<표 II-12> SIWA 외국인 대상 규방공예 교육내용	28
<표 II-13> 미국 박물관 내 한국관 현황	30
<표 II-14> 미국 L.A 엘에이카운티 박물관 조각보 소장 현황	31
<표 II-15> 규방공예 관련 영문 사이트	32
<표 II-16> 한국전통문화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36
<표 II I-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2
<표 V-1>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혼서지보	68
<표 V-2>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기러기보	69
<표 V-3>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오방색보	70
<표 V-4>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두루주머니	71
<표 V-5>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전통옷감시장	73

<표 V-6>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조각보박물관	74
<표 V-7>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전통공예품상가	75
<표 V-8>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조각보와 현대미술	78
<표 V-9>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조각보와 켈트	79
<표 V-10>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조각보 응용수업	80
<표 V-11>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 기초반 수업	82
<표 V-12>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 연구반 수업	83

그림 목 차

<그림 II-1> 김홍도 행려 노상풍경	12
<그림 II-2> 김홍도 모당평생도 혼인식	12
<그림 II-3> 김홍도 행려 춘일우경	12
<그림 II-4> 신윤복 계변가화	12
<그림 II-5> 신윤복 무녀신무	12
<그림 II-6> 김준근 팔달관	12
<그림 II-7> 궁보	18
<그림 II-8> 민보	18
<그림 II-9> 상보	18
<그림 II-10> 버선본보	18
<그림 II-11> 기러기보	18
<그림 II-12> 혼서지보	18
<그림 II-13> 홀보	18
<그림 II-14> 겹보	18
<그림 II-15> 숨보	18
<그림 II-16> 누비보	18
<그림 II-17> 조각보	18
<그림 II-18> 식지보	18

I. 서 론

세계적인 석학인 프랑스의 기 소르망(Guy Sorman) 파리 정치학교 교수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정부에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문화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서비스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을 권했다. “문화와 국가의 이미지가 대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니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한국은 수출에서 양적인 부분만을 강조해온 면이 있다면서 “국가 자체를 브랜드로 해외에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2013.4.30. 오마이뉴스기사)한 바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입안과 각종 연구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산업’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 전 세계는 통신수단과 인터넷의 발달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유튜브를 통해 국내 가수의 노래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재의 상황은 이미 지구촌이 하나의 다국적 문화권역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시대에 ‘문화’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심지어 정치, 경제, 외교 등 그 밖의 국제관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외부 문화를 접하고 이를 익히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애정과 호감도가 함께 증대된다. 따라서 오늘날 각 국가들은 문화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여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르망의 지적처럼 한국 문화의 전파는 다소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각국에 있는

문화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교육과 전시회, 홍보서적 배포 및 신문 제공 등을 통해 자국의 호감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다각적으로 문화전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 중에서도 ‘조각보’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각보는 조형미와 아름다움의 면에서 세계적인 예술가의 작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한국을 대표할만한 우리의 공예예술품이기도 하다. 이는 세계 우수 박물관에 다수의 조각보가 한국관의 소장품으로 전시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각보 또한 외국에 소개할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체계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조각보의 제작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특성상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확보가 전파의 핵심이 되는데, 이러한 체계는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상황이라 여겨진다.

조각보 강의는 각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백화점문화센터,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및 종합복지관, 규방공예공방, 박물관 부설 교육기관 등에서 단발적으로 규방공예(조선시대 여인의 공예품) 교육에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은 2000년대 삼청각에서의 SIWA(서울국제여성협회) 교육을 시작으로 개인교습 혹은 소규모 단체 수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즉 현재까지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은 일회적 체험형식의 기념품 제작수업이나 실용성이 없는 옛 생활 소품을 만들어 보는 수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현재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우리 문화의 체계적 해외전파를 위해 해외에서의 조각보 전시회 등으로 외국인들의 규방공예(조각보)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조각보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효과적인 조각보 교육안의 개발은 시기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방공예 수업 경험이 있는 국내외 외국인의 수업내용과 운영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외국인 대상 규방공예 교육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 규방공예 교육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서술할 외국인들의 교육내용과 운영에 대한 요구도 조사와 그에 따른 규방공예 교육안 설계는 조각보 교육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규방공예

1) 규방공예의 개념

규방공예란 부녀자의 처소를 지칭하는 단어인 ‘규방’ 과 일상용품을 예술적인 솜씨를 가미해 제작한 물건을 지칭하는 ‘공예’의 복합어로 조선시대 양반집 여성의 생활공간이었던 규방에서 제작된 모든 공예품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고려시대까지 활발하던 여성들의 대외 활동은 조선 성리학의 정착과 더불어 규방내의 것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양반가 교육을 받은 소수의 여성과 그 시대에도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한 기녀들의 시, 서화 등 작품을 제외하면 우리 옛 여인들의 예술적 감각과 창작 에너지는 대부분 가족을 위하여 만들던 생활용품 속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규방공예에 쓰인 기능으로는 침선, 염색, 자수, 매듭 등이 있으며 규방공예품으로는 한복, 생활소품(골무, 자집, 수저집, 마늘꽃이, 가위집, 인두판, 보자기) 등이 있다(김지영·김문진,2000).

규방공예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보통 넓은 의미로는 ‘규방에서 제작되어 온 모든 공예품’이라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규방공예의 범주를 ‘전통적인 기능과 형태를 이어받아 제작되고 실생활에 사용되는 자수, 한복, 보자기 및 규방 소품류, 염색, 매듭’이라 정의한다.

2) 규방공예의 분류

(1) 자수

자수는 일상생활용품에 의미나 아름다움을 더 하려는 인간의 장식 욕구에 의해 발전된 공예예술이다. 우리 옛 여인들의 삶 속에서 자수는 소망의 표현이자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는 매개체였으며, 수를 놓는 행위는 여인들의 마음을 수양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자수는 문양의 도안, 실의 염색정도, 실의 꼬임새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가능하여, 이를 통해 수를 놓은 개인의 감각을 가늠할 수 있다.

복식에 놓인 자수는 장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흥배와 같이 신분의 표식으로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신부의 예복인 활옷에 놓인 자수의 문양과 같이 부귀영화 등 개인적 기원을 담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불교자수는 사찰에서 쓰는 용품을 장식하는 용도로 놓는 자수로서 부처님에 대한 공양의 의미로 신도나 스님에 의해 만들어졌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불교 자수로 내소사에서 전해오는 ‘법화경 불경 덮개’가 있다. “불경 뒤의 받기에 따르면 태종 15년 1415년 유근의 부인 이씨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을 만들었으며, 표지에 수놓은 덮개를 덮어 시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허동화, 1997). 불교자수는 다른 자수와 달리 시주자의 시주 내력과 상황이 적혀있어 생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2) 한복

우리 옛 여인들의 가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가족들의 입성을 꾸리는 일이었다. 한번 세탁을 할 때마다 뜯고 풀 먹이고 다듬은 후 다시 바느질 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복은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주부들의 솜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이기도 했다. 오늘날 한복 만들기와 관련된 누비, 자수, 금박 등과 소품류, 주머니, 버선, 두식류 등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물론 예술적인 아름다움의 측면에서도 계속하여 보존되어야 할 공예의 한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의 한복은 주머니가 없는 상·하 분리의 직선형의 구조를 띠고 있어 조선시대의 것과 유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입으며 발에는 버선을 신고 머리에는 외출 시에 방한용 혹은 의례용으로 두식을 쓴다. 주로 격식을 갖추는 자리나 의례용으로 입는 경우가 많다.

(3) 보자기 및 규방 소품류

전통적인 우리의 주거공간은 다소 좁은 편이었는데, 보자기가 가구나 기구를 대신하여 물건의 운반용, 싸서 보관해두는 보관용 혹은 가리개나 덮개용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어 이러한 공간의 협소함을 보완해 주었다. 보자기는 그 용도와 장소, 목적에 따라 의례용, 덮개용, 싸개용, 물건 운반용 혹은 장식용으로 구분되며 정성들여 만드는 행위 자체가 여인들의 기원과 염원을 담은 기복적 신앙의 도구이기도 하였다. 오늘날 실용성 외에도 그 미학적인 아름다움으로 인해 독자적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조각보와 우리 옛 여인들의 솜씨와 정성이 담긴 규방소품류, 골무, 자집, 수저집, 안경집, 마늘꽃이, 가위집, 인두판 등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4) 염색

우리의 복식, 자수, 규방소품이 오늘날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전통

염색의 아름다움과 장점 또한 재평가 되고 있다. 실제로 화학염색으로부터 나온 색상과 비교할 때 자연의 염료가 내는 우리 고유의 색들은 깊고 아늑한 느낌을 주어 심리적 안정을 줌과 동시에 건강에도 유익한 측면이 있다는 연구결과(이종남, 2004)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쪽(푸른색 계통), 홍화(붉은색 계통), 치자(노란색 계통), 쪽(녹색 계통)을 비롯하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색을 물 드리는 전통 염색기법은 오늘날 규방공예 수업의 한 부분으로 계승되고 있다.

(5) 매듭

매듭은 실, 끈 등으로 묶어 맺은 것을 뜻하는데. 단순히 묶기 위한 매듭에서 시작되어 점차 장식적인 면이 가미되어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의 의복과 소품에 장식용 혹은 기능적으로 사용된 매듭은 삼국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현재 접할 수 있는 매듭의 형태는 조선 후기의 것이다.

남자용 매듭으로는 도포에 매는 도포 끈, 호패를 매는 매듭, 부채 끝에 매는 장식용 선추, 주머니 끈술, 안경집 끈목이 있다. 여자용 매듭과 술로는 노리개매듭, 귀거리술, 조바위 장식술, 아얌 술장식, 남바위 매듭과 술 장식이 있다. 그밖에도 허리띠인 대자띠, 수저집술, 향낭술, 주머니용 술이 있다.

관복과 예복 역시 술과 후수를 드리웠으며 군인의 전립이나 병거지 깃발, 화살통, 검에도 딸기술을 드리웠다. 절에서는 초파일 행사에 쓰이는 가마에 여러가지 매듭의 장식을 썼다. 그 밖에도 대나무 발걸이로 쓰인 매듭, 궁에서 쓰던 향낭 매듭이 있으며 한옥 사랑방에 서류꽃이로 걸던 고비에도 술로 장식을 하였다(김은영, 1989). 현재는 의복의 단추, 노리개, 주머니 장식 혹은 장식용 생활용품, 관광상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2. 전통보자기

1) 보자기의 유래와 역사

우리 보자기의 역사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기록한 문헌은 없으나, 여러 자료를 통해 과거 보자기의 형태 및 용도와 역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래는 1413년 편찬된 태조실록부터 27대의 순종실록까지의 사료에 나타난 보자기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실록에 보자기는 주로 의식용으로 기물을 싸거나 덮는 의례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자기에 관한 기록이 가장 빈번했던 시기는 세종 때로 총 47건이 언급되었으며(허동화, 2004), 용도 면에서 볼 때 제기나 술통을 덮는 보자기, 용품을 싸는 보자기, 책을 싸는 보자기, 간찰과 칩서를 싸는 보자기, 의류를 싸는 보자기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보자기의 용도와 실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주요한 기록으로는 선조 39년(1606년) 6월 21일(무오)의 벽서사건에 관련된 시비 가시의 공초¹⁾를 들 수 있다.

사비(私婢) 가시(加屎)의 공초에 ‘나는 사비가 아니고 양녀(良女)이다. 관노 세영(世英)의 집에 살고 있는데 지난달 25일 밤 닭이 울녘에 내가 빨래하기 위해 옷보따리를 가지고 반수(泮水) 안의 샘가로 가서 땅에다 퍼놓고 물에 적시려 할 적에 심신(心身)이 절로 떨려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옷가지들 도로 보자기에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서서 사방을 돌아보니 고요할 뿐 보이는 것이 없었다.(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국역본 선조39년/ 벽서²⁾사건 기록)

1) 私婢加屎供稱：‘矣身非私婢，乃良女也。館奴世英家居生，前月二十五日夜鷄鳴時，矣身以洗踏衣服取濕次，持衣袱，入于泮水內井邊，纔鋪地取濕次，心神自然驚懼，不能留在。衣服還裹袱中，戴立四顧，寂無所見’ (조선왕조실록 원본 선조39년/ 벽서사건 기록)

여기에서 보자기는 세탁물을 싸는 빨래보의 용도로 사용되었다(허동화, 2004).

광해 9년(1617년) 11월 9일(경오)의 기록에는 중국 황제가 조선에 보낸 칙서와 광해군 생모 김씨에게 내린 선물 목록이 적혀 있는데 목록 중에는 ‘붉은 보자기 1개’라고 기록되어 있어 국가간의 의례를 위한 공물로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28년(1752년) 11월 17일(갑술)의 기록³⁾에도 궁중에서 쓰인 보자기의 사용처와 재질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태실(太室)의 좌榻(坐榻)에 까는 천은, 옛날에는 무늬가 놓인 비단을 사용하였고 지금은 명주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빈혼전⁴⁾(殯魂殿)과 빈혼궁⁵⁾(殯魂宮)에는 무늬 있는 비단을 사용하고 있으니, 마음에 어떠하겠는가? 이 뒤로는 빈전⁶⁾에 홍광직(紅廣織)으로 두른 휘장을 붉은 명주로 대신하고, 보자기와 요 그리고 상건⁷⁾(床巾)은 그전에 무늬 있는 비단으로 사용하던 것을 모두 향주(鄉紬)로 대신하고, 그전에 향초(鄉綯)를 사용하던 것은 그냥 두라는 뜻으로 책에 기록하여 편집하도록 하라.”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국역본 영조 28년/ 혼전과 혼궁에서 절하는 위치와 규범에 관한 기록)

그 외 『동국이상국집』, 『고려사』, 『여사제강』, 『증보문헌비고』, 『당헌서』에도 보자기에 관한 언급이 있어 보자기의 용도와 더불어 시대적

2) 조선시대에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부착한 게시물

3) “太室坐榻所排，昔則用綾，今則用紬。殯魂殿、殯魂宮用綾緞，於心若何 此後殯殿紅廣織帳，代以紅紬，袂與褥、床巾，前或以綾緞者，皆代以鄉紬，前用鄉綯者，仍前之意，載之編輯。” (조선왕조실록 원본 영조 28년/ 혼전과 혼궁에서 절하는 위치와 규범에 관한 기록)

4) 조선시대에 임금이나 왕비의 국장 뒤 3년동안 신위를 모시던 전각

5) 태자나 세자의 국장 뒤 3년동안 신위를 모시던 궁전

6) 국상때 상여가 나갈 때까지 왕이나 왕비를 모시던 전각

7) 상보, 예식이나 잔치때 쓰는 다리가 긴 상의 아래쪽을 가리는 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허동화, 2004).

조선시대 규방문화에 관련된 문헌인 『사소절』, 『계녀서』, 『규합총서』에도 보자기에 대한 용도와 종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계녀서』의 부모를 섬기는 도리에서는 “강보에 싸인 때로부터 성장하도록 근로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이 끝이 없듯이 어찌 잊을 때가 있으리오”에서 강보는 아기를 싸는 보를 일컫는다. 『사소절』의 부의편, 의복장에는 “이불과 베개, 요와 요강을 보를 가지고 잘 덮어서”⁸⁾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 덮는 용도의 보자기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여인들의 가사 지침서인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염색을 하는 등의 가사에 자주 보자기의 쓰임이 언급되어 있다(이경은, 2003).

궁중에서 쓰인 보자기에 대한 기록은 『만기요람』, 『궁중발기』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궁중에서 쓰인 물품의 목록인 『궁중발기』에는 순조 19년인 1819년부터 1910년 사이 궁중 내 존재하던 보자기의 치수, 개수, 색, 천의 종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풍속화는 보자기의 쓰임, 종류 및 용도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민간 풍속화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보자기가 나타나 있는데 김홍도의 『행려노상풍경』(<그림 II-1>)에는 남자종이 어깨에 물건을 나르는 용도의 백색 후리보⁹⁾를 맨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II-2>에서는 혼인식에 기력아범이 적색으로 짠 기러기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보이며, 봄에 밭을 가는 농촌을 그린 『행려춘일우경』(<그림 II-3>)에서는 백색의 강보로 아낙네가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신윤복의 『계변가화』(<그림 II-4>)에서는 목욕과 빨래를 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빨래터에 놓인 백색 붓짐이 그려져 있다. 신윤복의 『무녀신무』(<그림 II-5>)에는 무

8) 衾枕褥虎子。以帕幕之。不煩人見。巾幌櫛匣。亦藏屏處。鑷筐抿子揷。男女不相通用

9) 물건을 나르는 용도의 보자기로 어깨나 허리에 걸쳤다.

녀가 벌이는 곳판에서 백색 상보로 소반과 광주리를 덮고 있으며, 19세기 작가 김준근의 『팔달판』(<그림 II-6>)에는 탈 뒤로 붉은색 천으로 만들어진 탈을 묶기 위한 탈보가 보인다(허동화, 2004).

풍속화에 그려진 후리보, 기러기보, 강보, 빨래보, 상보, 탈보 등의 보자기는 나르고, 싸고, 덮고, 매는 등의 다용도로 사용되어 조선시대의 모든 생활에 널리 이용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표 II-1> 풍속화에 등장하는 보자기*

작가	제목	시기	보자기의 종류와 용도	비고
김홍도	행려 노상풍정	1778	후리보(물건을 나르는 용도)	<그림 II-1>
	평생도(돌잔치)	19c	덮개보	
	평생도(혼인식)	19c	기러기보	<그림 II-2>
	타도락취	1778	후리보	
	행려 춘일우경	1795	강보(아기 덮개)	<그림 II-3>
작가미상	평생도(돌잔치)	19c	덮개보	
	평생도(혼인식)	19c	기러기보	
김득신	행려 풍속도병		목판보(음식 덮개)	
신윤복	계변가화		붓짐	<그림 II-4>
	무녀신무		상보(상 덮개)	<그림 II-5>
김준근	팔달판	19c말	탈보(탈을 묶는 용도)	<그림 II-6>
	신혼납폐		함보	
	침선		반진고리보	
	시장		머릿보(여인의 머리에 쓰는 보)	
	부부행상		보부상보	

* 출처 : 허동화(2004) 이렇게 소중한 보자기 역사(재정리)



<그림 II-1>
 김홍도
 행려 노상풍정
 1778년
 프랑스 기메박물관
 비단에 열은 채색
 100.0×49.0cm
 후리보(물건나르기)



<그림 II-2>
 김홍도
 모당평생도 혼인식
 1781년
 국립중앙박물관
 종이에 채색
 122.7×47.9cm
 기러기보(혼례용)



<그림 II-3>
 김홍도
 행려 춘일우경
 1795년
 국립중앙박물관
 종이에 채색
 100.6×34.8cm
 강보(아기 덮개)



<그림 II-4>
 신윤복
 계변가화
 1778년
 간송미술관
 종이에 채색
 28.2 x 35.6cm
 붓집



<그림 II-5>
 신윤복
 문녀신무
 1778년
 간송미술관
 종이에 채색
 28.2 x 35.2cm
 상보(상덮개)



<그림 II-6>
 김준근
 팔달관
 19c말
 함부르크인류학박물관
 종이에 채색
 12 x 25.5cm
 탈보(탈 고정 용도)

2) 보자기의 용도와 분류

(1) 보자기의 용도

다양한 크기와 색, 질감의 천 또는 한지로 만드는 보자기는 예부터 물건을 싸거나 덮는 용도로 이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자기는 주로 전통 주거공간의 협소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구의 용도를 대신하였고(이불보, 헛댓보, 밥상보) 때때로 의례용 혹은 의식용으로 쓰이기도 하였다(혼례용, 불교의식용, 상례용, 제례용). 의례용 보자기는 물건을 보호함과 동시에 예절을 표현하고 장식하는 면이 현대의 포장 개념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특별한 용도가 없이도 보자기를 정성들여 만드는 행위 자체가 복을 불러온다고 여겨져 만들어지기도 하였다(수보자기, 조각보). 부귀영화를 바라는 문양을 수놓은 혼례용 보자기나 여러가지 고운 색의 천을 이어 아름답게 만드는 조각보가 그 예이다.

(2) 보자기의 분류

보자기는 크게 사용 계층에 따라, 용도에 따라 혹은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사전 자수박물관 허동화(1926~) 관장의 저서들을 토대로 재정리하였다.

① 사용 계층에 따른 분류

보자기는 사용 계층에 따라 궁중에서 쓰이던 궁보와 일반 서민들이 쓰던 민보로 나뉜다. 궁보는 궁중의 물품을 싸거나 보관하는데 이용된 보자기로, 옛 문헌인 『궁중발기』와 『상방정례』에 상세한 크기, 색, 용도가 기

록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고종순종실록』에도 그 용도와 종류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남아있다.

궁보는 조각천이 아닌 온전한 옷감으로 용도에 맞추어 제작되었다는 점과 왕실에만 쓸 수 있는 색인 홍색계통이 주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표 II-2> 사용 계층에 따른 전통 보자기의 분류

분류	분류기준	특징	그림 예
궁보	궁중에서 각종 물품을 싸거나 보관하기 위해 쓰던 보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국산 향직으로 만들어졌으며 홍색계열이 다수 • 한 폭의 천으로 제작 • 재료, 크기와 용도가 문헌에 기록됨 	<그림 II-7>
민보	서민층에서 사용한 보자기 용도에 따라 상용보와 의례용으로 분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재료를 사용 • 여러 조각 혹은 한 장의 천으로 제작 • 다기능, 다용도로 사용 	<그림 II-8>

② 용도에 따른 분류

특정 용도로 제작된 궁보와는 달리 민보의 경우 제작 후 여러가지 용도로 쓰였다. 민보는 일상생활에서 쓰인 상용보와 의례용으로 쓰인 의례용보로 나뉘지는데, 상용보는 대개 크기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 쓰였다.

일상용 보자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물건을 싸서 나르는 용도로 공사용 문서와 물건을 싸는 전대보, 보부상들의 등짐인 보부상보, 휴대용 물건을 어깨나 허리에 매던 후리보, 서찰을 싸는 용도의 간찰보, 책을 싸는 책보, 함을 싸서 나르는 용도의 함보 그리고 조선시대 과부를 업어가는 풍습에 쓰이던 보쌘보를 들 수 있다. 물건을 싸서 보관하는 용도로는 옷감을 싸두던 옷감보, 이불을 싸서 보관했던 이불보, 빨랫감을 싸두던 빨래보, 회초리를 싸두던 회초리보 그리고 여성들의 생리대를 보관하던 서답보가 있다. 옷감보는 옷감형태의 보존을 위해 대개 옷감과 같은 천으로 만들어졌다. 덮는 용도의 보자기로는 음식을 청결하게 보관하기 위해 덮는 밥상보, 목판보와 중요한 물건을 덮어 보호하는 용도의 경대보, 반질그릇보, 햇대에 걸어 놓은 옷 위에 덮는 햇대보가 있다(허동화, 2006).

의례용 보자기는 혼례용, 상례용, 제례용, 불교 의식용과 특수한 경우에 쓰이던 보자기가 있으며, 혼례용 보자기로는 전통 혼례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과정인 친영의 절차중 전안례용 기러기를 싸는 기러기보, 사주단자를 싸서 보내는 사주단자보, 신부가 시댁에 예단을 싸서 보내던 예단보, 신부의 폐백시 폐백음식을 싸던 용도의 폐백보 등이 있다. 상례용 보자기로는 죽은 자의 품계, 관직, 성명 등을 써서 관을 덮는 용도의 명정보, 조상의 영정을 싸서 보관하는 용도의 영정 봉안보, 제사용 기물을 싸는 제기보가 있다. 그밖에 불교의식에 쓰이던 경전을 싸는 경전보, 공양음식을 진설할 때 쓰던 공양보, 예불시 쌀이나 밥을 덮던 마지보, 기우제를 지낼 때 사용하던 기우제보, 탈 뒤에 매달아 탈을 얼굴에 쓰게 하는 용도의 탈보 등이 있다(허동화, 2006).

<표 II-3> 용도에 따른 전통 보자기의 분류

분류	분류기준	특징	그림 예
상용보	민가에서 일상용으로 쓰이던 모든 보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기에 따라 다용도로 사용 일상적으로 싸고, 덮고, 나르고,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p>상보 <그림 II-9></p> <p>버선본보 <그림 II-10></p>
의례용보	민가에서 쓰는 보자기 중 의례용으로 쓰이던 보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와 격식에 맞게 제작·사용 혼례용 : 기러기보, 예단보, 혼서지보, 폐백보, 사주단지보, 연길보 상례용 : 명정보, 영정 봉안보, 제기보 불교의식용 : 경전보, 공양보, 마지보, 제기보 기타 : 기우제보, 탈보 	<p>기러기보 <그림 II-11></p> <p>혼서지보 <그림 II-12></p>

③ 형태에 따른 전통 보자기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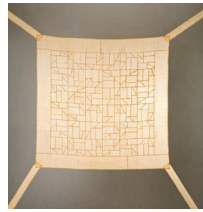
보자기는 제작형태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는데, 한 겹의 천으로 만든 홀보와 두겹의 천으로 만들어진 겹보가 있다. 겹보 안에 솜을 놓거나 솜을 놓은 후 누벼서 모양을 낸 솜보와 누비보는 기물의 보온이나 파손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보자기이다. 남은 천조각을 이어 바느질해 만든 조각보는 같은 종류의 직물로 제작되었으며, 다용도로 사용되었다. 식지보는 기름을 먹인 한지를 이용하여 만든 보자기로 걸감은 천을 덧씌운 것도 있으며, 주로 음식물을 덮는 용도로 쓰였다(허동화, 2006).

<표 II-4> 형태에 따른 전통 보자기의 분류

분류	분류기준	특징	그림 예
홀보	겉감만 있는 홀겹의 보자기	한겹의 천으로 제작	<그림 II-13>
겹보	겉감과 안감이 있는 두 겹의 보자기	두겹의 천으로 제작 박쥐 매듭 등의 장식으로 겹속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임	<그림 II-14>
솜보	겉감과 안감사이에 솜을 넣어 만든 보자기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보온이 필요한 물건을 싸두기 위한 용도	<그림 II-15>
누비보	겉감과 안감사이에 솜을 넣어 누빈 보자기	솜보와 같은 용도로 제작 여러 가지 패턴으로 누벼 모양을 냄	<그림 II-16>
조각보	조각천을 이어 만든 보자기	같은 직물의 조각을 이어 제작 다용도로 사용	<그림 II-17>
식지보	한지에 기름을 먹여 안감으로 대거나 식지로만 만든 보자기	보자기에 이물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방수의 목적으로 한지에 기름을 먹인 식지로 제작 주로 밥상보로 사용	<그림 II-18>



<그림 II-7>
궁보
김효주 작
1988년



<그림 II-8>
민보
김효주 작
2007년



<그림 II-9>
상보
김효주 작
1998년



<그림 II-10>
버선본보
보나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그림 II-11>
기러기보
김효주 작
2006년



<그림 II-12>
혼서지보
김효주 작
2004년



<그림 II-13>
홀보
김효주 작
1992년



<그림 II-14>
겹보
김효주 작
2002년



<그림 II-15>
숨보
김효주 작
1989년



<그림 II-16>
누비보
김효주 작
2010년



<그림 II-17>
조각보
김효주 작
2008년



<그림 II-18>
식지보
김효주 작
1990년

④ 조각보의 정의

조각보란 옷을 짓고 남은 부분이나 현 천조각의 온전한 부분을 모아 조각을 맞추어 꿰매 일상에 쓸 보자기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유물로서 남아있는 조각보는 주로 19세기 중·후반에 만들어진 것이다. 조각보는 계획된 패턴에 맞추어 천을 선정, 재단하는 서양의 켈트와 달리 가지고 있는 천 조각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선과 면을 맞추며 만들기 때문에 현대 구성작품과 같은 ‘변형 속에서의 조화’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각보 작품은 예술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대개의 조각보는 같은 종류의 직물끼리 제작되었으며, 천조각의 모양에 따라 모양을 배치해가며 꿰매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듯 즉흥적인 조각보의 제작방법 때문에 조각보에는 조각보를 만든 여인의 예술적 감각이나 취향이 담겨있다.

조각보는 노리개보부터 상보, 이불보, 반진고리보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어 왔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조각보 유물도 다수 발견되는데, 이것은 조각보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창작의 기쁨을 준 예술작업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허동화, 1997).

3. 규방공예 교육의 현황

1) 국내의 규방공예 교육 실태

규방공예 수업은 대략적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전통문화교육 전문기관, 규방공예 관련 공방 및 개인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산하 교육기관 등에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비울적으로 규방공예나 전통조각보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기관은 소수이며, 인터넷을 통한 동호회 활동 및 수업도 타 공예모임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2013) 개설되어 있는 규방공예 교육기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규방공예 교육

각 대학 평생교육원의 규방공예 관련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교양과정과 전문가(자격증)과정으로 나누어진다. 규방공예 수업은 ‘규방공예와 자수’, ‘규방공예와 염색’, ‘규방공예와 전통복식의 기초과정’ 등의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조각보와 규방소품 제작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 바느질법을 시작으로 조각보, 규방소품, 기초 자수 등을 수업하는 ‘규방공예 소품류 수업’과 기초바느질법, 조각보, 규방소품 등의 수업과 함께 염색 혹은 전통복식을 포함한 ‘복식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업기간은 한학기 12주에서 15주나 두학기 30주로 이루어진 과정이 대부분이었으며 1회 수업은 2~4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업은 출간된 교재 없이 강사의 교안에 대한 설명이나 미리 제작된 견본품을 보고 따라하는 방식이다.

수업료는 한학기 당 15만원~35만원 정도로 실습재료비의 포함여부, 작품의 가짓수, 재료의 품질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표 II-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규방공예 교육*

교육기관명	교육과정 명	교육시간	홈페이지 주소
강릉 원주대학교	규방공예 및 전통조각보	12주 (주1회2시간)	www.edu.gwnu.ac.kr
국민대학교	규방공예	15주 (주1회4시간)	www.lifelong.kookmin.ac.kr
목포대학교	규방공예	15주 (주1회3시간)	www.cec.mokpo.acd.kr
성신여자대학교	조각침선 공예사	30주 (주1회3시간)	www.life.sungshin.ac.kr
전주대학교	규방공예	15주 (주1회3시간)	www.conedu.jj.ac.kr
제주대학교	한국전통 규방공예	15주 (주1회3시간)	www.psg.cheju.ac.kr
창원대학교	전통복식과 규방공예	15주 (주1회2시간)	www.lchangwon.ac.kr
충북대학교	규방공예와 천연염색	15주 (주1회2시간)	www.lifelong.cbnu.ac.kr

* 자료 : 연구자가 각 대학 홈페이지 검색 후 정리 (2012.12)

(2) 전통문화교육 전문기관 및 규방공예 관련 개인공방의 규방공예 교육

현재(2013년 상반기) 전통문화교육 전문기관 및 규방공예 관련 개인공방의 규방공예 수업은 규방공예, 조각보, 보자기교실, 전통보자기 문화반, 규방공예/전통공예 지도사 과정, 자수 보자기반, 전통 혼례보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다.

각 기관과 공방의 특성에 따라 규방공예 수업이 자수, 혼례 보자기, 조각보 등으로 좀 더 세분화되기도 하며, 수업기간은 3개월 과정부터 1년 과정까지 다양하고 주 1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수업료 외에 별도로 실습재료비가 책정되고 있으며 재료와 강사의 인지도에 따라 과정 당 5만원에서 8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일부 단체의 경

우 권위있는 전문가나 명장급의 전문강사 강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과정과 전문가과정을 별도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수준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기관도 있다.

교육내용은 수업을 통해 강사의 설명을 들은 후 개별적으로 과제물을 제작하여 강사의 검사를 통해 완성하는 그룹식 일대일 수업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표 II-6> 전통문화 교육전문기관 및 개인공방의 규방공예 교육*

교육기관명	교육과정 명	교육시간	홈페이지 주소
가교 규방공예 연구회	규방공예·보자기	6주(주1회) 5주(주1회)	www.gagyo365.com
북촌 문화센터	전통혼례보	12주 (주1회3시간)	macart.co.kr
용인시 문화원 문화학교 규방문화 연구소	조각보	32주 (주1회2시간)	www.ycc50.org
우리규방	규방공예 배움터	8주 (주1회2시간)	www.woorikyubang.co.kr
운현궁 문화교실	보자기교실	12주 (주1회2시간)	www.unhyeongung.or.kr
청주시 한국공예관시민공예 아카데미	규방공예	20주 (주1회2시간)	www.korreacraft.org
하늘물빛 전통천연염색 연구소	조각보, 매듭, 자수, 천연염색	12주 (주1회3시간)	www.macart.co.kr
한국 과학 복식재단	전통공예 지도자 과정	15주 (주1회3시간)	www.kcsf.or.kr
한국 예절문화원	전통보자기 문화반	8주 (주1회2시간)	www.etiquette.or.kr
한국 전통공예 건축학교	자수 보자기반	32주 (주1회3시간)	www.kous.or.kr

* 자료 : 연구자가 전통문화 교육전문기관 및 사설공방 홈페이지 검색 후 정리 (2012.12)

(3)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규방공예 교육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기관에서 규방공예 수업은 지역 여성회관, 여성복지관, 문화원 및 농업기술센터 일부에 개설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교육 수업이나 우리 전통문화교육과 연관된 수업과정 중의 일부로 개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업은 기초 규방공예과정과 소품제작과정이 주로 개설되어 있으며, 수업기간은 3개월 과정부터 1년 과정까지 주 1회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를 통해 수업료는 무료에서 7만원까지로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규방공예 교육*

교육기관명	교육과정 명	교육시간	홈페이지 주소
경산시 문화회관	천연염색과 규방공예	15주 (주1회3시간)	www.cul.gbgs.go.kr
경주시 평생학습 문화센터	규방공예	12주 (주1회3시간)	www.gjcw.or.kr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학습센터	규방공예	12주 (주1회2시간)	www.dsedu.go.kr
부산강서 문화원	규방공예	32주 (주1회2시간)	www.culture.bsgangseo.go.kr
서울광진 문화예술회관	조각보와 침선공예	12주 (주1회3시간)	www.gjart.gwqangjin.or.kr
의정부 문화학교	규방공예	1년과정 (주1회2시간)	www.iloveculture.or.kr

* 자료: 연구자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검색 후 정리 (2012.12)

(4) 국내 외국인의 규방공예 교육

국내 외국인의 규방공예교육은 2000년~2007년까지 서울국제여성협회 (Seoul International Women 's Association ; SIWA)에서 1년 과정의 주1회 3시간 수업을 개설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수업내용은 초급 기초 바느질법에서부터 중급 조각보, 규방소품제작, 고급 조각보 및 한복소품 만들기까지로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 현재는 각 대학 국제학부나 외국인 상대의 봉사기관, 개인공방 등에서 비정기적인 단기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적, 지속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단체는 없는 실정이다.

<표 II-8> 국내 외국인 대상의 규방공예교육*

교육기관명	교육과정 명	교육시간	홈페이지 주소
서래 글로벌 빌리지 센터	규방공예	비정기 단기과정	www.global.seoul.go.kr /seorae
서울국제여성협회	규방공예	1년(2000~2007) (주1회 3시간)	www.siwapage.com

* 자료 : 연구자가 국내 외국인의 규방공예 교육기관 홈페이지 검색 후 정리 (2012.12)

(5) 교육기관별 규방공예 교육내용의 비교

교육기관별 교육내용은 교육주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난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는 기초생활용품에서 소품, 전문용품 제작까지의 과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교육전문기관 및 개인공방의 경우는 규방공예소품, 조각보수업과 더불어 우리 고유문화, 풍습과 관련된 되살림 규방공예 수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경우는 기초 바느질법 외에 소품과 생활용품의 제작을 위주로 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관별 구체적인 수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9> 강릉원주대학교 규방공예 교육내용*

회차	교육내용
1	사각 바늘꽃이, 삼각 조각보
2	사각 바늘꽃이, 삼각 조각보
3	소형 조각보, 삼각 조각보
4	소형 조각보, 카드 지갑
5	소형 조각보, 카드 지갑
6	노방상보, 여의주문보
7	노방상보, 여의주문보
8	조각보 골무, 여의주문보
9	조각보 골무(기초, 중급)
10	예단보, 향낭(향주머니)
11	예단보, 향낭(향주머니)
12	예단보, 생활소품

* 자료 :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 (www.edu.gwnu.ac.kr)

<표 II-10> 한국예절문화원 규방공예 교육내용*

회차	교육과목	교육내용
1	보자기 문화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의 쓰임새 및 활용성 • 간지구별과 선택법 • 섬유의 종류 및 감별법
2	혼례서식과 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지보, 시계보, 사주지보, 연길서보 재단하기
3	혼례보 매듭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듭의 종류 • 장구매듭 만들기
4	동심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심결의 의미 • 동심결 만들기
5	혼례서식보 완성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지보, 시계보, 사주보, 연길서보 완성 및 다름질
6	장신구와 주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서지 주머니 만들기 • 전통문양과 금박달기
7	혼례함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주함, 납폐함보 재단하기 • 예탁보, 결상보, 폐백상보 재단하기
8	작품평가 및 수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평가 및 활용 실습 • 수료식

* 자료 : 한국예절문화원 홈페이지(www.etiquette.or.kr)

<표 II-11> 경산시 문화회관 규방공예 교육내용*

회차	교육내용
1	강의의 개괄적인 설명및 천연염색과 규방공예의 이해
2	전통 침선기법 및 다과보 제작
3	오방색 보자기와 오행의 원리
4	오방색 보자기와 감침기법
5	연잎다포와 찻잔받침 세트(모시)
6	두루주머니 응용 핸드폰고리 제작
7	귀주머니 응용 핸드폰고리 제작
8	향낭
9	전통침선기법을 활용한 악세사리 제작 1
10	전통침선기법을 활용한 악세사리 제작 2
11	꽃잎 다기주머니(전통 누비기법)
12	모시발 제작 1
13	모시발 제작 2
14	모시발 제작 3
15	자유작업 및 발효염색의 원리
16	염색실습 및 완성작품 염색
17	염색실습 및 완성작품 염색
18	작품평가 및 완성

* 자료 : 경산시 문화회관 홈페이지(www.cul.gbgs.go.kr)

<표 II-12> SIWA 외국인 대상 규방공예 교육내용*

회차	교육내용
1	Pin Cushion
2	Side Dish Cover
3	Side Dish Cover Embroidered Wrapper
4	Embroidered Wrapper
5	Evening Bag
6	Evening Bag Main Dish Cover
7	Main Dish Cover
8	Patchwork Wrapper
9	Patchwork Wrapper
10	Wrap-up (Finishing all project)

* 출처 : 서울국제여성협회(SIWA) 외국인대상 규방공예 교육자료 (김효주)

2) 국외의 규방공예 교육 실태

현재 외국에서의 규방공예나 조각보 강좌는 개인공방이나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일회성으로 개설되거나 국내 규방공예가나 단체의 전시일정 중 공예 체험 참여수업을 여는 등의 방식으로 산발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연속성을 가진 정기강좌가 개설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들의 규방공예 수업참여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유물의 외국 박물관내 소장 상황과 인터넷상 규방공예 및 조각보에 대한 홍보 실태를 영어문화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우리 유물의 외국 박물관 소장 현황

외국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지역 박물관의 한국관을 관람하는 것이다.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미주와 세계 유명박물관의 아시아관에는 중국관, 일본관과 더불어 한국관이 개설되어 있으며, 국보급 서화, 도자기 등을 비롯하여 가구, 의복, 규방공예품 및 조각보 등이 소장되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로스앤젤레스의 엘에이카운티 미술관, 보스톤의 보스톤 미술관 등을 비롯하여 각 주의 군소 도시 박물관에도 우리의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다. 소장 상황을 정리하면 <표 II-13>와 같다.

<표 II-13> 미국 박물관 내 한국관 현황*

박물관명	소장품 규모
Metropolitan Museum of Art (메트로폴리탄미술관)	48평, 소장품 200여점(98년 개관)
Peabody Essex Museum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78평, 소장품 2500여점(03년 개관)
Brooklyn Museum of Art (브루클린 박물관)	28평, 소장품 450여점(74년 개관)
Portland Art Museum (포틀랜드 미술관)	28평, 소장품 132점(97년 개관)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 카운티 미술관)	175평, 소장품 500여점+도판 850점 (09년 개관)
Museum of Fine Art, Boston (보스턴 미술관)	33평, 소장품 1,100여점(82년 개관)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샌프란시스코 아시안 미술관)	80평, 소장품 700여점(03년 개관)
Seattle Asian Art Museum (시애틀 아시안 미술관)	40평, 소장품 223점(94년 개관)
Freer Gallery of Art (프리어 갤러리)	27평, 소장품 784여점(93년 개관)
Houston Museum of Art (휴스턴 미술관)	63평, 소장품 120점(07년 개관)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ional History (스미스 소니언 국립 자연사 박물관)	30평, 소장품 3000여점(07년 개관)
Honolulu Academy of Art (호놀룰루 아카데미 미술관)	14평, 소장품 803여점(60년 개관)

* 자료 : 국립 중앙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

그 외에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기매박물관, 캐나다 U.B.C 대학의 인류학박물관, 로얄 온타리오박물관,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네덜란드의 하멜하우스기념관, 이탈리아의 이태리 국립동양예술박물관, 러시아의

국립중앙예술박물관 등에서도 한국관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엘에이카운티박물관에는 8점의 조각보가 박물관의 미국 소장품 목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각 보자기의 제작년도, 제작소재, 사용용도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표 II-14> 미국 로스엔젤레스 엘에이카운티 박물관 조각보 소장 현황*

소장번호	용도	제작시기	소재	크기
AC1995.118.4	Covering Cloth	late 19th-early 20th century	Textile, Silk gauze patchwork	28 3/4 x 35 in. (73.03 x 88.9cm)
M.2004.23	Covering Cloth	early to mid-20th century	Textile, Silk gauze patchwork	27 x 25 1/2 in. (68.58x64.77cm)
AC1995.118.1	Covering Cloth	early to mid-20th century	Textile, Silk plain weave patchwork	40 x 40 in. (101.6x101.6cm)
AC1995.118.3	Wrapping Cloth	late 20th century	Textile, Ramie (mosi) plain weave patchwork	58 1/4 x 56 3/4 in. (147.96x144.15cm)
M.2006.186	Wrapping Cloth	late 20th century	Textile, Ramie (mosi) plain weave patchwork	32 x 30 1/2 in. (81.28x77.47cm)
AC1997.62.1	Wrapping Cloth	late 20th century	Textile, Ramie (mosi) plain weave patchwork and embroidery	53 x 49 1/2 in. (134.62x125.73cm)
AC1997.63.1	Wrapping Cloth	late 20th century	Textile, Ramie (mosi) plain weave patchwork	59 x 60 7/8 in. (149.86x154.62cm)
AC1995.118.2	Wrapping Cloth	late 20th century	Textile, Ramie (mosi) plain weave patchwork	43 x 41 3/4 in. (109.22x106.05cm)

* 자료 : LA County Museum 홈페이지(www.lacma.org)

(2) 규방공예 관련 영문 사이트

세계 주요 영문 검색 엔진인 구글, 야후, 유튜브 등에 소개되어 있는 우리 규방공예 관련 사이트를 분류하면 영어권에 살고 있는 교포의 규방공예품 및 조각보 소개와 제작방법을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있으며, 외국 블로거들이 조각보를 제작한 후 한국의 조각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본인의 작품을 소개한 홈페이지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규방공예품 중 하나인 보자기를 모티브로 한 상품의 판매와 동호인 갤러리 형식의 온라인 전시공간 등을 찾을 수 있다. 현재(2013년) 검색가능한 대표적인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표 II-15> 규방공예 관련 영문 사이트*

사이트 명	내용	인터넷 주소
BO BO	보자기전문 판매업체 한국 전통보자기 형식의 포장용 보자기판매	www.bobowrap.com
Changhie Lee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보자기 작가의 보자기를 모티브로 한 섬유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사이트	www.changhielee.com
Dancing on Temple Tops	일본 교토에 거주하는 미국인 작가의 보자기 작품 및 설명 사이트	www.wabei-mono.com
Sri threads	미국 브루클린에 있는 일본섬유공예갤러리 웹 사이트, 다수의 한국 보자기작품 전시 판매	www.treads.srithreads.com
The Silly Boo Dilly	미국에 있는 섬유공예 작가의 사이트,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을 전시 판매	www.thesillyboodilly.blogspot.kr
web-gallery	Leonie Castelino의 보자기 작품과 보자기를 모티브로 한 섬유미술작품을 소개하는 작가의 개인 블로그	www.leoniestelino.com

* 자료 : 연구자가 외국 규방공예 관련 영문 사이트 검색 후 정리(2012.12)

4. 선행연구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규방공예 수업에 대한 요구도나 수업방안, 내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규방공예 및 조각보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첫째,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통미술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신지원(2007)의 연구가 있다. 신지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 및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박물관 방문과 수강경험, 박물관 관람 후 한국 전통미술품에 대한 이해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서 외국인들은 한국 전통미술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육대상의 한계, 낮은 빈도수, 영어 위주의 교육을 꼽았으며, 교육내용의 한계로는 단기 체험위주의 교육을 지적하였다. 또한 도자기, 염색, 공예 등 단조로운 주제와 일회성 체험 등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 교육방법의 한계로는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서비스 시설과 안내책자의 부족, 내용의 부실 또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신지원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통미술교육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예를 제시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경험 및 요구에서 이명자(2011)는 서울소재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12명을 심층면담하여 한국문화경험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예절과 의례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목해야 할 조사결과는 이들의 한국문화교육 경험은 대부분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문화교육이 나아

갈 방향에 대하여 교육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한국의 정신적인 가치와 한국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함을 꼽았다.

둘째, 규방공예 및 조각보 관련 선행연구로는 이자영(2008)의 중학생대상 전통 조각보의 조형성을 이용한 미술 수업방안에 대한 연구와 한국 규방공예의 실태를 조사한후 활용방안을 제시한 이연순(2007)의 연구가 있다. 이자영(2008)은 남·녀 중학생 각 100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인식, 전통문화의 가치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통 조각보의 문양을 미술수업의 조형학습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자영(2008)은 전통 조각보를 소재로 미술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얻는 교육적 효과로 우리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현대 기하추상미술과의 비교학습을 통해 조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동시에 조각보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규방공예 교육의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로는 전국에 있는 규방공예 관련 교육기관 및 공방의 현황, 교육내용 등을 정리·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안한 이연순(2007)의 연구가 있다. 이연순(2007)은 규방공예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전국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및 종합복지회관, 백화점 문화센터, 개인공방 등의 수업내용, 방식, 환경 등을 조사 후 교육내용의 부실함과 교육과정의 직접적인 활용도가 낮음을 지적하였다. 교육기간은 일반적으로 주 1회 2시간, 한학기 3개월 수업, 한 과정당 2학기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환경은 시설의 미비와 한옥의 좌식수업이 신체에 무리를 주어 교육효과를 저하시킨다고 보았다.

김지영(2012)은 자기 주도적 규방공예 학습을 위한 E-Learning 콘텐츠 설계 및 구현 연구에서 현대사회의 한 부분인 인터넷을 이용한 규방공예 수업

의 예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규방공예 수업의 내용을 분석한 후 해외의 E-Learning 사례를 참고로 인터넷을 이용한 규방공예학습의 콘텐츠를 설계하여 개발·적용하였다.

셋째, 조각보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로 권정은(1996)은 조각보 유물의 문양을 고찰하고, 몬드리안, 클레의 작품과 비교·분석하였다. 미술의 비전문가인 19세기 조선여성에 의해 제작된 조각보와 현대 추상 회화에는 공통점이 있음을 주장하여 조각보의 예술적인 가치를 현대미술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박현주(2011)는 조각보의 문양을 수집·분류해 그 조형성을 응용하여 실생활에 사용가능한 오리지널 아트작품, 문화상품, 생활용품 및 문구용품 등을 개발하여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한국적 이미지를 이용한 문화 홍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표 II-16> 한국전통문화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야	논문제목	연구자 (년도)	연구내용
외국인 대상 한국전통문 화 교육 관련 연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통미술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신지원 (2007)	박물관 기능을 이용한 우리 전통미술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인의 한국 예절 다도교육에 대한 요구 연구	서영실 (2007)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예절·다도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분석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문화 경험 및 요구 연구	이명자 (201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예절과 의례 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인 대상 규방공예, 조각보 교육 관련 연구	한국 규방공예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 모색	이연순 (2007, 2008)	전국에 있는 규방공예 관련 교육기관들의 현황 및 교육내용, 방법, 비용 등을 요약 분석 후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안
	전통 조각보의 조형성을 기초로 한 미술 수업 방안 연구	이자영 (2008)	전통조각보의 문양을 중학생 미술수업의 조형학습과 연계하여 수업방안을 제시
	자기 주도적 규방공예 학습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설계 및 구현	김지영 (2012)	인터넷을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 규방공예 수업 콘텐츠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연구
조각보 관련 연구	조선 조각보 문양에 나타난 추상성	권정은 (1996)	19세기 조각보 유물의 문양 속에 담긴 우리민족의 집단무의식의 원형을 고찰하고, 서구의 몬드리안과 클레의 그림과 비교·분석
	조각보의 조형성을 응용한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박현주 (2011)	조각보의 조형성과 문양을 수집 정리 후 자료를 토대로 문화상품 개발의 예를 제시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교육에는 교육대상의 확대, 교육대상의 다변화, 체계적인 교육안이 요구되며, 외국인의 한국문화 습득과 조각보의 예술성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개체로서 규방공예 수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규방공예 수업 참여 학생들의 수업동기 및 수업에 대한 요구도 분석 작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육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체계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규방공예 수업의 경험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교육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외국인들의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규방공예에 대한 인식, 기존 전통규방공예 수강경험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외국인들의 규방공예 교육운영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셋째, 외국인들의 기존 규방공예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어떠한가?

2. 연구대상

1) 연구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규방공예 수강경험이 있거나 수강 중인 외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외국인의 지역모임, 인사동 규방용품 판매점의 소개 혹은 한국인 친구의 권유로 연구자의 규방공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연구 주제와 목적에 맞는 학생들 중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고 설문지 내용에 솔직하게 답해줄 수 있는 지식과 의지가 있는 수강생들로 선정하였다.

각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이들의 규방공예 수강 동기는 다음과 같다.

사례 1은 영국에서 온 신혼 주부이다. 남편의 회사 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왔으며 동양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동 근처 레지던스에 체류 중인 관계로 인사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공예를 접하였다고 한다. 이전에 한국에 대한 지식을 접한 적이 없었고, 인사동 근처에 사는 것이 무척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생활이 즐겁다고 한다. 수업에서 귀국 시 가져 갈 수 있는 용품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사례 2는 영국에서 온 주부로 자국에서도 퀼트를 만들던 여성이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외국에 살던 경험이 많아 한국에 와서 바로 운전을 하고 다녔고, 한국의 전통적인 ‘바느질 공예’를 배우기 위해 알아보았다고 한다. 수업 외에도 동호인들과 일주일에 한 번 바느질 모임을 가지며 동대문의 옷감도매시장을 방문해서 퀼트용 옷감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 비교적 조각보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며, 남편이 직업군인인 관계로 무관의 상징인 호랑이 흥배를 만들거나 구입하고 싶어 했다.

사례 3은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 일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미국에서 온 주부이다. 일본에 사는 동안 일본 누비의 일종인 ‘사시꼬(Sashiko)’를 배웠고 일본 천들을 다량 구입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바느질이 취미여서 미싱퀼트를 했다고 한다. 동양문화에 대해 전문가인 남편을 통해 동양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으나 한국에 온 후 한국과 일본은 다른 점이 많다고 느꼈다고 한다. 한국 체류기간 중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인 조각보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했다.

사례 4는 캐나다 출신의 주부로 이미 규방공예 수업을 배운 경험이 있다. 한국 지인의 소개로 한국 학생들과 같이하는 규방공예 수업에서 기초자수, 조각보, 소품만들기, 기초매듭 등을 배워 본인이 만든 작품들을 여러 개 소장하고 있었다. 과거의 수업 중 규방공예 선생님이 다른 학생의 잘못된 바

느질을 뜯어버리는 것을 보고 놀란 경험이 있다고 했다. 보다 전문적으로 배워 귀국 후 한국공예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

사례 5는 노르웨이에서 온 50대 주부이다. 한국에서 알게 된 외국인 모임과 참석한 관광, 한국문화강좌 등으로 한국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 체류 하는 것은 처음이며 작품을 만드는 것도 즐겁지만, 박물관 방문이 더 즐거운 경험이라고 했다. 한국에 같이 온 10대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 한국생활에 갈등을 느끼지만, 바느질이 안정감을 준다고 하였다.

사례 6은 프랑스에서 온 40대 주부이다. 이태원 상가에서 조각보를 보고 흥미를 느껴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 수공예품의 예술적인 측면에 흥미를 느끼나 수업 중에는 본인의 독특한 색감이나 취향에 맞는 작품을 만들기 원했다. 동대문 시장의 물건 구입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조금씩은 판매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조각보에 쓰이는 천이 한복을 만들기 위해 제작된 제품이고 옷감에 따라 소량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사례 7은 칠레에서 온 주부이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문화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왔으며 본인의 주최로 자택에서 규방공예 수업이나 한국 전통 문화 공부를 하는 모임을 가지는데 적극적이었다. 특히 자수에 관심이 많아 개인선생님으로부터 별도의 수업을 받고 있으며, 자수 화조도 병풍을 만들고 있다. 본인의 작품들로 한국을 떠나기 전 작품전을 할 의향도 있다. 동양문화에 상당히 호의적이며 특히 한국의 전통 규방공예 분야를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 한다. 본인이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많아 수업 중 질문도 구체적이었다. 조각보에 대해서 본인이 자수를 배우면서 알게 되어 등록하였다.

사례 8은 한국에 4년 짜 체류 중인 60대 미국인 주부이다. 한국 자수병풍 구입과 함께 한국 공예에 관심이 생겨 조각보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조각보를 처음 접했던 것은 자국에서 본 『Quilted Planet』이라는 세계의 여성 공예를 소재로 한 책으로 한국의 조각보에 대한 소개를 보았다고 했다.

사례 9는 미국에서 온 주부이다. 한국에 도착 후 바로 수업을 받기 시작한 경우이다. 인사동 거리의 가게에 걸려 있는 조각보를 보고 조각보에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자국에서부터 퀼트와 바느질이 취미였고 한국에 오기 전 시장 과 서울의 지리 등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조사하여 많이 알고 있었다.

사례 10은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9년째 체류 중인 프랑스인이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규방공예 수업을 신청했다. 이 수업을 통해 한국 문화, 특히 여성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 한국인과 이야기를 할 때는 자국의 입장을, 다른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 중에 배우는 전통문화 부분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규방공예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거나 수강 중인 10명의 외국인 성인여성을 심층 면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국적은 가능한 다양하도록 하여 미국인 3명, 영국인 2명, 프랑스인 2명, 캐나다인, 노르웨이인, 칠레인 각각 1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 5명, 30대 2명, 50대 1명, 60대 이상이 2명이었다. 모두 기혼자로서 한국인과의 결혼으

로 한국에 정착한 1명 이외에는 남편의 한국 근무로 인해 한국에 체류 중에 있었다. 한국체류 기간은 3명이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이 4명, 2년 이상이 3명이었다(표 Ⅲ-1참조).

<표 Ⅲ-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국적	성별	나이	결혼	학력	한국방문 목적	한국체류기간
1	영국	여	30대	유	대졸	남편근무	6개월
2	영국	여	40대	유	초급 대졸	남편근무	1년 6개월
3	미국	여	60대 이상	유	대졸	남편근무	8개월
4	캐나다	여	40대	유	대졸	남편근무	2년
5	노르웨이	여	50대	유	대졸	남편근무	1년
6	프랑스	여	40대	유	대졸	남편근무	1년8개월
7	칠레	여	40대	유	대학 원졸	남편근무	2년
8	미국	여	60대 이상	유	대졸	남편근무	4년
9	미국	여	40대	유	대졸	남편근무	7개월
10	프랑스	여	30대	유	대졸	한국인과 결혼	9년

3. 조사 및 분석방법

1) 면접조사

조사는 질적연구의 한 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를 적용하였으며, 사례자의 규방공예에 대한 인식 및 수강경험, 규방공예 교육방안에 대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조사자료는 면접질문지를 이용하여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차 개별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2차 면접은 2013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수행하였다.

김영천(1998)은 질적 연구론에서 “면담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이나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면담 가이드에 의한 비표준화 및 반 구조화된 질문을 면담과정에 사용하였다. 질문의 형식에 대상자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분위기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와의 라포(rapport)는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사례와 연구자의 외국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면서 형성하였다. 설문지를 기초로 한 면접시간은 일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으며, 일부 문항에 보완질문을 위해 사례 별로 2~3회의 추가 질문이 화상 인터뷰나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 질문지는 신지원(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와 이연순(2007)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다.

질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 외에 총 23문항의 질의로 작성되었다. 한국 전통문화와 전통 규방공예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8문항과 전통 규방공예교육 수강경험과 인식에 대한 질문 5문항, 그리고

규방공예교육 수강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여부와 요구에 대한 질문 5 문항, 규방공예 교육의 운영에 대한 요구를 묻는 질문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규방공예에 대한 전반적인 영문설명서(<부록 5>)와 규방공예 용어의 정의표(<부록 6>)를 제공하여 질의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도록 하였으며, 규방공예 교육운영에 대한 요구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기 전에는 규방공예 수업안내서(<부록 7> 및 <부록 8>)를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심층 면접 시 녹취된 자료의 전사작업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서 녹취된 자료는 질문지의 세부문항의 면접내용 중 구술내용에 따라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카테고리화 한 후 각 내용끼리의 연계성 및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거쳤다. 또한 연구의 목적인 효율적인 외국인의 규방공예 교육방안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면접내용 중 의미있는 내용은 구술내용대로 기술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들의 규방공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전통문화, 공예에 대한 관심,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경험과 관심,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수강 경험과 인식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응답자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규방공예’와 조각보의 정의가 제시된 영문설명지(<부록 5>)를 읽고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며 설문 도중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나 한국의 공예품 명칭 등은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된 용어의 정의(<부록 6>)를 참고하도록 했다.

1) 한국 전통문화 및 공예에 대한 관심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에 관한 질문에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매우 높다고 대답하였다(사례 1, 2, 4, 5, 6, 7, 8, 9, 10). 그 이유에 대해서 일부 연구대상자의 경우는 “사는 지역, 수업 경험, 견학 등의 이유로”, 한국문화와의 접촉이 빈번해서(사례1,4,5,6)라고 답하였으며 그 외 “모국 문화와의 동질성을 느껴서”(사례7), “한국에 장기체류하여서”(사례8), “한국인과의 결혼”(사례10) 때문이라는 대답이 있었다.

관심 분야로는 여성관련(사례 2, 4, 9) 공연예술(사례3), 도자기(사례5), 조각보(사례 6), 자수(사례 7, 8), 전통예절(사례10)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예’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구체적인 분야로는 조각보(사례2, 5, 6, 9), 도자기(사례1, 5, 8, 10), 여성들의 공예(사례4), 매듭(사례3) 등을 꼽았다.

저는 한국이 남편의 첫 발령지예요. 남편의 회사는 수습기간에 동양 문화권에서 1년 썩 거주하며 일하거든요. 그 전에는 저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인 런던에서 살았고, 런던도 유물과 유적이 많은 오래된 도시라 서울에 대해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매우 관심이 많아요(사례 1).

네, 한국에 대한, 특히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아요. 그동안 제가 속해있는 모임에서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강의도 듣고 공연도 보아왔거든요. 한국의 폭넓은 문화가 무척 흥미로웠고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사례 5).

제가 관심 있는 한국의 전통문화는 자수예요. 한국의 자수병풍을 구입했는데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놀랐어요. 지금까지도 병풍을 가까이 놓고 즐기고 있어요(사례 8).

한국의 전통사상(유교), 전통예절 등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특히 새해에 절을 하는 문화나 돌, 결혼 때 전통방식을 접할 때가 있어 좀 더 알기 위해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사례 10).

한국공예에 대한 이미지는 참으로 다양해요. 저는 한국에 오면서부터 자수를 시작으로 조각보, 매듭, 전통 바느질, 한지 공예, 다도 등을 배웠어요.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고요. 배우다 보니 각 분야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자기에 자수를 놓으며 보자기의 쓰임새를 안다던가 하는 방식

으로요. 또 아기 베개를 만들 때도 옆에 자수를 놓았어요(사례 4).

2)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경험과 관심

규방공예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국에서의 한국의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경험 및 자국의 공예품과의 유사점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한국의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검색 경험과 검색 매체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1)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경험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자국에서 한국의 공예나 규방공예와 관련된 자료를 접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아시아의 상징적인 세나라인 한국, 일본, 중국의 공예의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특별히 동양의 공예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적은 없다고 답하였다. 한국의 규방공예(조각보)를 연상시키는 자국의 공예품으로는 킬트(사례 1, 2, 3, 4, 7, 8, 10)로 응답하였으며 스테인드글라스공예 (사례5), 패치워크(사례 6), 어플리케(사례 9) 등으로 답하였다.

아니요, 특별히 한국 공예를 접한 적은 없었고 일본에 일년간 체류했을 때 일본의 사시꼬(Sashiko,일본 누비의 일종)를 배운 적이 있어요. 동네 근처에 일본천을 파는 가게가 있어 자주 들렀었고 그 때 일본의 섬유공예는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사례 3).

아니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어요. 아마 토론토나 밴쿠버 등은 동양인이 많이 살아 접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가 살던 곳은 대도시가 아니어서 특별히 다른 문화권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사례 4).

조각보와 비슷한 공예는 퀼트나 미싱퀼트가 아닐까요? 똑같지는 않지만 손으로 천을 이어서 만든다는 점과 생활용품으로 쓰인다는 점이 같고, 또 유물이 전해진다는 점도 같고요(사례 3).

우리나라의 퀼트 공예 중 Crazy Quilt 라는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규칙 없이 천을 이어나가는 퀼트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조각보와 비슷하다고 봐요. 바느질법은 다르지만요(사례 8).

(2) 규방공예(조각보)자료 검색과 매체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자료 검색 경험과 매체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는 대부분이 수업을 선택하기 위해 자료를 처음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책과 같은 출판물을 통해 정보를 접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사례 4, 7, 8, 10) 인사동의 규방공예(조각보) 재료가게에 문의한 경우(사례 1, 2, 6)가 그 다음이었고 인터넷 검색(사례 3, 9)이 그 뒤를 이었다.

본인이 접한 자료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규방공예 이해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으며(사례 1, 3, 4, 5, 6, 7, 9) 일부만이(사례 2, 8, 10)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앞으로 예상하는 자료검색 이용매체는 인터넷이 대다수였으며(사례 1, 3, 5, 7, 9, 10) 책(사례 2, 4, 8), 지인에게 물어보기(사례 6) 순이었다.

조각보에 관한 자료를 찾은 것은 한국에 와서 관광정보센터 포스터에서 본 조각보 사진과 전통식당에 걸려 있던 조각보 창문 가리개를 보고 궁금해져서 'Korean Quilt'로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지는 못했고, 제가 본 작품이 ‘Bojagi’라는 것은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죠.

자료는, 유물 작품이나 설명 등은 비교적 많이 찾을 수 있었고 만드는 법 등은 찾기가 힘들었어요. 배울 수 있는 장소도 찾을 수 없었고요.

앞으로 자료 검색은 인터넷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사례 3).

자료를 찾아본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 관한 강좌를 들을 때마다 좀 더 자료를 찾아보려고 책을 찾아보았고, 재료상에게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원하는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했어요. 책은 한국의 공예를 분야별로 짧게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었어요. 한국인에게 질문도 해봤지만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영어로 찾을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어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곤 했는데 자세히 설명된 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 4).

3)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수강 경험과 인식

규방공예(조각보) 수업의 참여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규방공예(조각보)의 수업경험과 수강목적 그리고 한국 전통공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1) 규방공예(조각보) 수강 경험과 경로

사례 4를 제외한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과거의 규방공예 수강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하였다. 규방공예 수업의 수강경로에 대한 질문에서는 주한 외국인 모임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가 대다수였으며(사례 1, 3, 6, 7, 8, 10), 조각보 작품전 관람 후 수강하게 된 경우(사례 2), 친구의 권유(사례 5), 조각보 재료상의 소개로(사례 9), 본인이 하던 수업의 연장으로(사례 4)가

있었다. 특히 사례 4의 경우 과거 규방공예 수업을 한국인들과 함께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경우였다.

제 경우 한국인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 중 선생님이 한 학생의 과제물을 잘못되었다며 뜯어버리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재료를 선생님이 선택해서 제공하였는데 모두가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은 다양성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어요(사례 4).

한국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 지역에 있는 외국인 모임에서 조각보 수업을 알게 되었어요. 일회성으로 조각보 형식을 이용한 기념품 만들기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알려주었거든요. 이러한 전통공예 교육은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기체류 외국인을 위해서 일정기간 꾸준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해요(사례 6).

인사동에서 조각보 작품을 보고 색감과 독특한 바느질법에 반해 귀국하기 전 마스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조각보 재료를 몇 개 샀는데 바느질법은 수업을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더군요(사례 9).

(2)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의 인식

규방공예 수업의 수강목적으로는 ‘한국공예를 배우기 위하여’, ‘한국문화를 배움과 동시에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하여’, ‘한국을 기억할 만한 공예품을 만들기 위하여’, ‘조각보 제작을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등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사례 1, 2, 3, 5, 6, 7, 8, 9, 10). 특별히 사례 4는 ‘한국 공예를 자국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답하였다.

규방공예 수업이 한국문화 배우기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각

보의 예술성과 쓰임새가 한국의 전통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서'라는 대답이 많았고(사례 2, 3, 6, 8, 9), '규방공예품과 조각보가 한국의 옛 풍습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도구여서'(사례 1, 4, 5, 7, 10)로 응답하였다.

앞으로 배우고 싶은 전통공예 분야로는 매듭(사례 3, 6, 10), 자수(사례 2, 7, 8, 9) 한지공예(사례 1), 한국화(사례 5), 염색(사례 4)을 꼽았다.

네. 한국문화와 관련된 첫번째 수업이었고 단순한 바느질이 아닌 한국의 풍습과 관련된 이야기도 배울 수 있어 한국문화의 이해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사례 1).

조각보 강의 중 강사가 조각보는 한국의 옛 여인들의 예술작품 이라고 하더군요. 조각보 바느질을 하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여성들의 삶은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네요(사례 2).

조각보는 한국의 오래된 공예품이 아닌가요? 배우면서 그 뒤에 있는 문화까지 함께 배우게 되리라 생각해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일본과는 다른 특유의 색감, 바느질기법도 개성이 느껴지더군요(사례 3).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옛 여인들의 문화니까 만드는 작품이나 그 물건의 쓰임새가 곧 옛 사람들의 생활상과 연결될 테니까요. 물건을 만드는 것은 곧 자연스럽게 옛 문화를 이해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 같아요(사례 4).

이 수업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수업에서 들은 설명 때문에 박물관에서 유물을 관람할 때 더 관심 있

게 보게 되기도 하고요(사례 5).

한국문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요. 자수를 배우며 도안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의 고미술품을 많이 보게 되었고요. 조각보를 만들면서 한국의 색감을 보게 되니 한국문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또 작품의 쓰임새를 알게 되면서 옛 풍습도 알게 되었어요(사례 7).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조각보는 한국의 옛 여인들의 방식을 따라 만든다고 들었어요. 바느질을 하면서 한국여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요(사례 8).

수업을 하다보면 더 많은 분야를 배우리라 생각해요. 한국 친구에게 어렸을 때 학교에서 조각보 바느질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옛 여인들이 하던 바느질이라는 것을 그 때 알았어요. 우리나라도 공예품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수업을 받는 것도 잘한 것 같고 한국문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사례 9).

규방공예 수업을 통하여 한국의 색, 미적 감각이나 규방문화 등에 대해 배우게(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사례 10).

이를 종합하면 대다수의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나 전통공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접하거나 개별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별로 없으며 이유로는 찾을 수 있는 영문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방공예(조각보) 수업을 수강하는 이유는 한국 전통문화를 알기 위해서

라는 답이 대다수였으며, 앞으로 배우고 싶은 전통공예 분야로는 매듭, 자수, 한지공예, 한국화, 염색 등 한국고유의 전통적인 공예분야 등으로 답하였다.

2. 규방공예 교육에 대한 요구

규방공예 교육에 대한 외국인들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내용에 대한 질문과 교육운영에 대한 질문이 각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졌다. 또한 면접 시 수업의 교육과정 커리큘럼(<부록 7> 및 <부록 8>)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되었으며 교육과정 중 의문나는 점은 질문을 통해 추가 설명이 주어졌다.

1) 교육 운영에 대한 요구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설계를 위해 외국인 수강생들이 원하는 규방공예 교육의 기간, 수업의 시간, 수업의 장소 및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강사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강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과 규방공예 강사가 강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조도구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1) 교육기간 및 수업시간

대다수의 연구대상자들이 원하는 교육기간은 12주, 3개월 간격으로 나타

났다(사례 1, 5, 6, 7, 8, 9).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연구대상자들의 대다수가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학교 스케줄에 따라 휴가를 보내는 일정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12주 교육기간은 이들의 수업 스케줄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수업시간은 주 1회 2~3시간이었으며 자녀들이 학교에 있는 오전을 선호하고 있었다(사례 1, 2, 4, 5, 6, 7, 9, 10).

아이들 방학기간 (크리스마스휴가, 여름방학 동안 3달)외에 1년 한 과정으로 지금처럼 3개월 단위의 등록이 좋아요. 보통은 1년 단위의 계획(체류기간을 뜻함)은 서 있거든요(사례 2).

주 2회 수업도 좋아요. 회당 2시간 정도나 아니면 1회 수업과 과제물도 좋아요.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지 않을 것 같아요(사례 5).

(2) 수업장소 및 수업방식

연구대상자들이 원하는 수업장소는 지역과 분위기 그리고 수업 시 구비되어야 할 집기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외국인들이 익숙한 이태원, 방배동, 성북동 등 강북지역이 선호되었으며(사례 5, 6) 자택(사례1, 4, 8) 혹은 한국적인 분위기 (사례2) 편안한 분위기(사례7), 밝은 조명과 의자가 있는 곳(사례5), 공공장소(사례10) 등이 응답되었다.

어디서나 괜찮지만 저는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의 수업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개는 수업 후에도 집에서 작업을 하니 조금 불편해도 한국적인 곳도 괜찮을 것 같아요(사례 2).

장소는 서울 강북이었으면 해요. 조명이 바느질하기에 적합하고 의자가 있는 곳이었으면 합니다(사례 5).

수업이 안정되게 한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편안한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소규모 그룹에서 대화를 하며 편히 설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해요. 목표보다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한국에서의 추억이 될 테니까요 (사례 7).

수업방식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소규모 그룹의 수업을 원했다(사례 3, 5, 6, 7, 8, 9, 10). 사례 1, 2, 4 는 상황에 따라 1:1 수업과 소규모 수업을 병행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바느질을 하며 하는 대화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궁금한 것도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아요. 바느질도 좋지만 모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모임이 좋아요. 외국생활에서 꼭 필요한 모임이거든요 (사례 3). 상황에 따라 1:1이나 소규모 혹은 단체수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회성은 수업의 특성상 안 맞을 것 같아요(사례 2).

(3) 규방공예 강사 요건

규방공예 강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강사의 자질과 성품이었으며 (사례 1, 4, 7, 8, 10), 소통 가능한 언어능력(사례 2, 3, 5, 9) 그리고 가르치는 분야의 전문지식(사례 6)을 꼽았다. 강사의 성품은 ‘참을성’, ‘배려’, ‘성실’, ‘소통’ 등의 단어로 표현되었다. 강사와의 만남이 한국인과의 첫번째 친밀한 만남이라고 표현한 경우와 한국의 문화와 접하는 통로라는 표현으로 요구되는 강사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강사의 중요한 요건은 참을성과 좋은 성품 같아요, 한국(한국인)을 알게 되는 첫번째 교류가 있는 상대라서요(사례 1).

외국인들을 위한 강사는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사례 4).

강사는 개개인의 성취도도 중요하게 봐야할 것 같아요. 각자의 속도도 다르고 테크닉을 익히는 속도도 다르니 각자 다른 과제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 가르쳐주는 자세가 필요하죠(사례 8).

학생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업은 단기간 머무르는 학생들에게는 한국문화와 접하는 단 하나의 통로일 수도 있거든요. 학생과의 문화의 소통, 개인 간의 소통은 한국을 기억하는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사례 10).

실제적으로 수업에 필요한 언어적 소통능력을 필요한 요건으로 지적한 학생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다른 강의에서 강의내용이 영어강의능력 부족으로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경험을 말했다.

수업에 대한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강사가 조건에 더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가지 궁금한 점들을 대화가 가능한 강사에게 물을 수 있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요(사례 2).

수업내용의 전달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다른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분이어서 수업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사례 9).

강사는 수업에 대한 깊은 지식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수업의 특성상 본인이 가르치는 분야를 잘 알면 언어가 조금 부족해도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요(사례 6).

(4) 규방공예(조각보)강의 보조도구

규방공예 수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도구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의 수업진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견본이 수업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의견(사례 2, 4, 8), 책이나 설명지, 교안 등 프린트물(사례 6, 7, 9), 영어 인터넷 자료(사례 1, 10), 밝은 조명과 테이블(사례 5), 보조강사(사례3) 등으로 매 단계에 설명이 필요한 수업의 특성상 각자 필요하다고 느낀 보조도구가 달랐다.

다양한 견본과 중간과정을 볼 수 있는 견본이 있으면 좋겠어요. 퀴트의 바느질법 같은 시집 같은 것을 볼 수 있게요(사례 4).

영어로 된 자료나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사례7).

영어로 된 동영상이나 인터넷 자료가 있으면...(사례10).

조명 테이블, 편한 장소가 필요해요(사례 5).

저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대 일로 기법을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보조 선생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사례 3).

이상을 종합하면 연구대상자들이 원하는 교육기간은 각 과정 당 12주였으며, 주1회 2~3시간이 적당하다고 답하였다. 교육장소로는 강북지역에 밝은

조명과 의자가 갖추어진 곳에서 수업받기를 원하였다. 강사에게 요구되는 요건으로는 교육자의 자질과 성품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언어능력과 전문 지식의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그 외에 실습물의 견본품, 영어로 된 자료나 서적, 인터넷 자료, 조명, 입식의자 등을 필수조건으로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2)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연구대상자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내용 중 흥미있는 내용과 어려운 내용,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앞으로 규방공예 교육과정의 설계에 참고가 될 내용으로 교육과 관련된 외부활동 참여의사와 배우고 싶은 한국의 전통공예분야를 질문하였다.

(1) 수업내용 중 가장 흥미있는 내용과 어려운 내용

연구대상자들이 느끼는 규방공예 수업 중 가장 흥미있는 내용은 조각보와 관련된 조각보의 도안 디자인, 만드는 기법 및 쓰임새와 관련된 역사에 대한 수업이었다(사례 2, 4, 5, 6, 8, 10). 그 다음으로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전통시장, 박물관 등의 수업관련 외부 견학수업(사례 1, 3, 9), 그리고 자수에 관심이 있는 학생(사례 7)이 자수의 기법과 내용이라고 답했다.

저는 조각보의 도안과 디자인이 가장 흥미로워요. 처음 보는 유니크한 디자인에 마음이 끌렸는데 일정한 패턴이 아닌 상황에 따른 색과 면을 만들어간 디자인이란 설명을 듣고 더욱 흥미로웠어요. 또 박물관에서 본 옛 유물의 도안이 아주 멋있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어 흥미로워요(사례 2).

조각보가 패턴없이 독창성을 발휘해서 만든다는 것이 가장 흥미로워요. 대개의 공예품은 만드는 방법이나 규칙, 패턴 등이 정해져 있어서 오랫동안 숙련된 사람일수록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에 반해 조각보는 자유패턴이 많아 색이나 모양을 선택할 수 있어서 만드는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거든요(사례 6).

그동안 수업 중에 만든 물품의 쓰임새를 공부한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조각보 같은 경우에 저는 장식품으로 걸어 놓는 용도인 줄 알았거든요. 생활 속에 쓰이던 것인 줄 안 것이 재미있었어요(사례 4).

시장에서 보자기의 쓰임새와 다양한 천의 종류를 경험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일본에서도 일본 고유한 천을 사왔는데 한국의 옷감과 다른 것이 느껴지던데요. 동양의 두 나라의 다른 점, 공예부분에 한정된 것이지만 비교해보니 흥미롭더군요(사례 3).

조각보와 연관된 용도등을 들으면 배경에 있는 풍습이나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나중에 모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가 되겠어요(사례 8).

수업내용 중 가장 어려웠던 내용으로는 바느질과 관련된 기법(사례 1, 2, 5, 10)과 작품 제작의 속도(사례 3, 4)를 들었다. 만드는 재료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지적한 사례(사례 6)도 있었다.

어려운 내용은 저는 바느질 간격이 정교하지 못해서 그게 힘들어요. 한국인들은 손이 섬세한가 봐요. 그렇게 작은 바늘땀을 간격이 고르게 바느질하는 걸 보면요(사례 5).

만드는 물품에 설명이 없이 만들기만 했을 때는 의미부여가 안되어서 그런지 만드는 것이 지루했어요(사례 4).

과제물의 속도가 제가 해내기 힘들 정도로 빠르네요(사례 3).

수업은 선생님이 제공한 재료로 만드는 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봤으면 해요. 한번 만들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갔는데 원하는 만큼 조금씩은 안판다고 하고 여러가지 색을 사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원하는 재료를 얻기가 힘드네요(사례 6).

(2) 수업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

규방공예 수업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는 7명의 연구대상자(사례 2, 3, 4, 5, 7, 9, 10)가 만드는 작품과 연관된 한국의 풍습, 문화, 역사적 배경 등의 스토리텔링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드는 물건의 쓰임새나 배경문화 등은 규방공예(조각보) 수업에서 만드는 작품이 단순한 공예품이 아닌 한국문화의 일부분을 접하는 매개체로서의 시각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작품을 만드는 기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사례 1, 8)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각보의 예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답변(사례 6)이 있었다.

수업 중 듣게 되는 한국문화와 만드는 작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외국인이고 한국에 있는 동안 접할 수 있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사례 3).

조각보와 관련된 한국문화를 중요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해요.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는 우리나라 문화를 우리나라 친구들에게는 한국문화를 소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사례 10).

만들기의 상세한 부분이 알기 쉽게 설명되었으면 해요(사례 8).

조각보의 예술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사례 6).

(3) 수업관련활동 참여의사

연구대상자들 모두가 수업과 관련된 다른 활동에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수업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연구대상자들(사례 1, 3, 5, 6, 8, 9)은 시장, 박물관, 조각보 전시회, 혹은 한국공예 관련 영어강의 등에 참여를 원했다. 또한 수업과 관련된 동호회 모임(사례 7, 4, 10)이나 교육이 끝난 후 함께 할 수 있는 전시회 방문 등의 활동(사례 2)을 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을 좀 더 알 수 있는 규방공예 관련 장소 방문이나 혹은 인사동 내에 내가 궁금했던 장소 등을 설명을 들으면서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귀국하기 전에 재료구입이 가능한 곳도 여러 곳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사례 1).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바느질 모임에서 한국의 옛그림을 주제로 해 도안을 한 퀵트 아프리카 작품을 모아 책을 낸 것을 보았어요. 그런 활동은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사례 4).

바느질모임을 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사례 10).

연구대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용으로는 조각보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다음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전통시장, 박물관의 방문으로 답하였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느질 기법과 재료의 구입을 꼽았으며, 실습 작품과 관련된 한국의 풍습 및 배경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좀 더 비중있게 다루기를 바랐다. 수업과 관련된 장소의 방문, 동호회 및 전시회 개최 등 수업 이후의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다.

V.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1. 교육 목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우리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경로는 우리문화를 접하고, 습득하며, 이해하고, 적응하는 단계를 거친다.

Pedersen(1988)은 “문화를 어떤 특정한 곳에서 낯선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하나의 인종 집단 내에서도 다른 여러 문화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즉 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우선적으로 자기문화와의 비교에서 출발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비교 수준에 머무른다면 타 문화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타문화의 심층적, 잠재적, 공식적 차원화를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객관적, 구조적 인식과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 문화의 이해란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정치, 경제, 상호의존, 갈등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수준에서든 혹은 개인적 수준에서든 타국의 가치관, 행동양식, 제도, 태도, 관습, 예술 등의 광의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지원, 2007; 22 재인용)

이와 같이 한 나라에서 형성된 특정한 고유문화는 해당 민족의 역사, 기술, 제도, 사회적 인식 등의 종합적 산물이며, 이러한 고유문화에 대한 교육은 해당문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방지하며, 이해심과 존중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신지원(2007)은 그의 논문에서 타국에서 받는 타국의 문화교육은 교육시

시스템을 제공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고,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국내의 외국인에 대한 고유문화 교육은 교육의 주제와 관계없이 우리의 역사, 사회 및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규방공예 교육이 외국인들의 문화적응을 돕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의 옛 여인들이 규방에서 만들었던 작품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면에 담겨 있는 역사, 풍습, 작품의 쓰임새, 전통 문화의 변천사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문화교육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방법의 측면에서는 현대문화 및 외국문화와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 운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출한 외국인 대상 규방공예 교육의 보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정보 및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 자체의 수가 매우 적으며, 개설된 프로그램도 외국인 단체 혹은 개인이 강사를 초빙하여 개최하거나 박물관, 문화단체의 일회성 수업 등 규모면에서 대중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규방공예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개설된 강좌마저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규방공예 수업을 한국문화체험의 테두리에서 이해하고 수업 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홍보매체 또한 다양화하여야 한다. 홍보 수단으로는 규방공예품매장, 재료판매점을 이용한 광고물 게시, 국내 인터넷 블로그 광고, 공공기관의 홍보물, 지자체 및 외국인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업방식과 교육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 규방공예 수업은 짧은 수업기간과 강사의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대부분 기능 익히기 혹은 간단한 기념품 만들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총체적 문화교육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작품의 완성과 함께 관련 역사, 풍습, 시대별 변천사 등이 어우러진 문화교육으로서의 규방공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규방공예 교육은 강사가 견본을 보여주고 학생이 이를 따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제는 다양한 매체와 시설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이나 수업내용을 공유 하고 전시할 수 있는 블로그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체험수업 형식으로 규방공예 작품을 소장한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재료의 구입을 위해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습득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위한 교육교재가 개발·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학습내용을 포함하여 한국문화의 종합교육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외국어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3. 교육 내용

본 논문에서는 기존 규방공예 수업의 단순한 기능 익히거나 작품완성 위주의 수업내용에서 벗어나, 본 연구의 조사 및 면담을 통해 나타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초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외국인에게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규방공예 수업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수업은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규방공예 작품에 깃들여 있는 풍습, 전통, 정신, 의미를 작품제작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첫째, 규방공예 작품제작을 통한 한국의 규방공예 이해 수업 둘째, 규방공예 관련 장소 방문을 통한 체험학습형식의 규방공예 체험 수업 셋째, 우리 규방공예문화와 자국공예 문화의 비교를 통한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토론하는 규방공예·문화비교 수업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한다.

1) 규방공예 이해 수업

본 수업에서는 규방공예 작품제작 과정을 통해 규방공예품의 유래와 쓰임새 그와 관련된 우리 문화와 풍습을 익힌다.

예를 들어 혼례와 관련된 혼서지보 수업에서는 한국의 전통혼례 과정인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혼서지의 내용과 보내는 절차 등을 설명한 후 자국의 결혼과정과 비교하여 토론하게 한다. 혼서지보를 완성한 후에는 한지에 혼서지 내용과 영문이름을 한글로 써주고, 혼서지보를 짜는 방법을 지도한다.

기러기보를 만드는 수업에서는 우리 전통혼례 과정 중 전안례 의식을 설

명하고, 이에 담긴 뜻과 의미를 되새긴다. 아울러 전통 한국사회에서의 혼례의 의미와 현대사회에서의 결혼문화를 이야기해 본다. 기러기보를 완성한 후 이를 짜는 방법을 익힌다.

우리 고유색에 대한 수업으로는 오방색보를 만들며 오방색에 대응한 방위와 각 색에 담긴 의미를 설명한다. 오방색의 천으로 가재도구를 만들어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던 규방여인의 염원을 설명한다.

한복의 소품인 주머니를 만드는 수업에서는 주머니의 견본을 종류별로 보여주고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에 대한 동영상이나 PPT를 보조도구로 사용하여 주머니의 쓰임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자국의 고유의상과 비교하는 기회를 갖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표 V-1>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혼서지보

영역	1-1. 규방공예 이해 주제: 혼례	
수업명	혼서지보 만들기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전통혼례 과정을 이해하고 혼서지보의 쓰임새와 혼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수업한다. • 혼서지보를 만들어 본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느질 도구 • 혼서지보 견본 • 혼서지 견본 	
단계	수업내용	문화익힘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전통혼례의 과정을 설명한다. • 한국 전통혼례과정 중 납폐의식에 쓰이는 혼서지의 내용과 절차를 설명한 후 느낌을 토론한다. 	납폐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서지를 한지에 써주고 영문이름을 한글로 써준다. • 혼서지보를 만든다. • 혼서지를 보에 쓰는 법을 익힌다. 	혼서지 혼서지보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전통 혼례의 의미와 과정을 자국의 결혼식과 비교하여 토론한다. • 한국의 전통 혼례 절차와 현대의 프로포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본다. 	

<표 V-2>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기러기보

영역	1-2. 규방공예 이해 주제: 혼례	
수업명	기러기보 만들기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전통혼례 과정을 이해하고 전안례에 쓰이는 기러기에 갖든 결혼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 기러기보를 완성하고 짜는 법을 익힌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느질 도구 • 목기러기 • 기러기보 • 전통 혼례과정 PPT 	
단계	수업내용	문화익힘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결혼풍습을 이야기해 본다. • 한국의 전통 혼례식에 참여해 본 경험에 대해 토론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전통혼례에 대한 설명 후 이 과정에 대한 PPT를 보여준다. • 한국의 혼례과정인 전안례에 대하여 설명한 후 기러기보를 만든다. • 기러기를 기러기보에 짜는 법을 익힌다. • 기러기에 담긴 혼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설명한다. 	기러기보 기러기 전안례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 한국 풍습에서 느껴지는 전통 혼례의 의미와 현대의 결혼의 의미를 비교 토론한다. 	

<표 V-3>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오방색보

영역	1-3. 규방공예 이해 주제:한국의 색	
수업명	오방색보 만들기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방색의 의미와 오방색으로 만든 규방공예 작품 속에 담긴 염원을 이해한다. • 오방색보를 만들어 본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느질 도구 • 오방색보 견본 	
단계	수업내용	문화익힘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에 관련된 각 나라의 고유한 의미와 상징에 대해 토론한다. • 오방색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다. 	오방색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방색보를 만든다. • 오방색에 함축된 옛 여인의 염원에 대해 설명한다. 	오방색의 의미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전통사회에서 쓰인 색의 규범과 의미에 대해 비교하여 토론한다. • 오방색의 현대적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표 V-4>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두루주머니

영역	1-4. 규방공예 이해 주제:한복	
수업명	두루주머니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이해한다. • 한복의 소품인 주머니를 만들어 본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 설명 PPT 및 동영상 • 바느질 도구 	
단계	수업내용	문화익힘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의 구조를 설명한다. • 오늘날의 가방 역할을 하는 주머니의 여러 가지 종류를 영상물로 보여준다. 	한복 두루주머니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루주머니를 만든다. • 주머니의 끈인 매듭에 대해 설명하고, 간단한 매듭을 만들어 주머니를 완성한다. 	매듭의 유래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19세기 한복의 모습과, 각자 자국의 고유의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2) 규방공예 체험 수업

규방공예 수업이 우리전통문화를 전파하는 문화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수업을 통한 문화체험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복식박물관, 보자기·자수박물관의 방문은 수업 중에 완성한 각 공예품의 용도와 쓰임을 실제 유물을 통해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피교육자는 본인이 수업한 작품과 연관된 한국 전래의 풍습과 문화를 전반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규방공예 수업의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전통 옷감시장의 방문은 우리의 전통이 현대에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이 될 수 있다. 전통 옷감시장에서 한복에 쓰이는 옷감의 계절별, 소재별, 형태별 구분방법과 구입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단순히 기능 전수 위주의 실내교육과는 달리 교육수료 후에도 한국의 규방공예를 능동적으로 익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전통문화 자산이 현대 생활용품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예품 상가의 방문수업은 전통공예품을 모티브로 하여 자신만의 생활 용품을 만드는 수업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방문 수업 후 공예품 상가에 있는 제품을 활용하여 각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디자인 해보는 기회를 가진다.

<표 V-5>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전통옷감시장

영역	2-1. 규방공예 체험 주제: 전통옷감	
수업명	동대문 광장시장, 전통옷감거리 탐방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에 사용되는 전통옷감의 종류를 직접 보고, 구입방법을 익힌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대문 광장시장 약도 	
단계	수업내용	문화익힘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옷감인 모시, 마, 무명 가을옷감인 국사, 갑사, 겨울옷감인 단 종류의 구별법과 구입단위를 설명한다. 	모시, 마, 국사, 갑사, 양단, 모본단, 명주 단위 : 마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에서 옷감 전문상가를 방문하여, 구입방법을 실습한다. 옷감의 문양에 담긴 뜻을 이야기한다. 	도류불수단 만자문단 운문단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국의 전통 옷감과 비교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표 V-6>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조각보박물관

영역	2-2. 규방공예 체험 주제: 조각보	
수업명	사전자수(보자기) 박물관 탐방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보자기 유물을 관람하고, 보자기의 쓰임새와 구성의 미를 학습한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자수(보자기) 박물관 약도 	
단계	수업내용	문화익힘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보자기의 종류를 학습한다. • 전통보자기 유물을 직접 관람한다. 	공보, 민보 의례보, 상용보 홀보, 겹보 조각보, 숨보, 누비보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자기 유물을 관람한 후의 소감을 토론했다. • 유물에서 느낀 전통문양을 토대로 자신의 도안을 만들어 본다.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옛 여인의 예술적 감각에 대해 이야기한다. 	

<표 V-7>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전통공예품상가

영역	2-3. 규방공예 체험 주제: 전통공예품	
수업명	인사동 전통공예품 상가 방문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공예품의 쓰임새를 알고, 현대적 재현품과 비교하여 감상한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동 상가 약도 	
단계	수업내용	문화익힘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동 전통 공예품 상가를 방문한다. 전통 규방공예품을 현대 생활용품과 기념품등에 응용한 상품을 살펴본다. 	조각보 조각보 모티브 장신구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한국의 전통 공예품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해 본다.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중에 나와 있는 전통공예품의 실제와 응용할 사항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3) 규방공예 · 문화비교 수업

규방공예 · 문화비교 수업은 규방공예 수업과정 중 배우게 되는 우리 규방공예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고 토론하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증진시키고 한국의 옛 여인들이 만든 규방공예품의 예술성과 현대적 감각을 발견하기 위한 수업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화에 익숙해지면 그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게 된다. 규방공예 수업이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들이 규방공예 수업 중 가장 흥미를 가지는 조각보 수업과정 중 자국의 문화와의 비교수업을 제안한다. 먼저 조각보와 현대미술 작품과의 비교를 시작으로, 서양의 켈트와 유사한 패턴의 조각보를 제작하고 전통 조각보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도출된 우리의 조각보만이 가진 모티브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사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세 분야의 수업으로 구성한다.

첫째, 조각보와 현대미술 수업에서는 우리 전통조각보의 예술적인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현대 미술가인 마티스, 몬드리안, 클레 등의 구성작품과 한국의 보자기 유물이 무작위적 순서로 혼합된 PPT자료를 보면서 한국의 보자기 유물과 현대미술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친 후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론한다. 그 후 한국 조각보의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다음 수업에서 적용할 조각보의 패턴을 만들어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현대미술 추상작품 중 조각보의 구성을 떠올리는 PPT를 보여주고 현대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옛 조각보 유물과의 유사점과 변화한 점을 이야기해보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이 수업에서는 한국 옛 여인들의 규방공예 작품이 규방여인들의 예술적 감각의

표출품이며, 현대 예술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예술품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한국 보자기의 한 종류인 여의주문보 만들기 수업에서는 여의주문보의 견본을 보여주며, 켈트와 성당 스테인드글래스의 패턴과 비교하는 기회를 갖는다. 우리 고유 문양인 여의주문과 서양의 스테인드글래스 문양의 유사점을 이야기해 보고 여의주문보 제작기법이 19세기 서양 선교사에 의해 들어왔다고 전해짐을 알려준다. 우리 보자기에 대한 서양문화의 영향을 이야기하며 외국인 수강자가 느끼는 한국과 자국의 문화적 유사성을 이야기해 본다. 여의주문보를 완성하며 한국문화와 친근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조각보 응용 수업에서는 조각보 구성을 이용한 디자인을 현대 생활용품에 적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테이블러너를 만든다. 각자 실측한 자신의 테이블 치수를 토대로 본인이 디자인한 러너를 제작하여 품평회를 갖고, 우리 조각보 디자인이 실생활용품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배운다. 조각보 모티브를 주제로 만들 수 있는 생활용품에 대해 토론한다.

조각보를 주제로 한 이상의 세가지 분야의 수업은 한국의 공예품을 제작함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배우며 또한 실생활에 응용해보는 실제적인 문화교육수업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표 V-9>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조각보와 켈트

영역	3-2. 규방공예 · 문화비교	주제: 조각보
수업명	여의주문보 만들기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의 켈트와 우리 조각보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학습한다. • 여의주문보를 만든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주문보 패턴 • 성당 스테인드글래스 패턴 • 바느질도구 	
단계	수업내용	문화의힘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주문보의 겹본을 보여준다. • 서양 성당의 스테인드글래스 문양과 비교한다. 	여의주문 문양 성당 창문의 문양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말 서양 전도사들이 들여온 켈트공예가 끼친 영향을 이야기한다. • 여의주문보를 완성한다. 	여의주문보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말 서양 공예가 우리 규방공예에 끼친 영향을 이야기한다. 	

<표 V-10>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안 : 조각보 응용수업

영역	3-3. 규방공예 · 문화비교 : 주제:조각보	
수업명	조각보 테이블러너 만들기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보 디자인과 현대 디자인을 비교 · 학습한다. • 조각보 문양을 응용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본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의 테이블 실측 자료 • 바느질도구 	
단계	수업내용	문화의힘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보 구성을 학습한 후 각자의 테이블 크기에 따른 패턴을 디자인해 본다. 	조각보 디자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보를 도안을 응용한 테이블러너를 만든다.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보를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4)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수업 계획

(1) 규방공예 수업 기초반 계획안

앞서 살펴본 세가지 영역을 기초로 한 규방공예 기초반 10회 수업은 규방공예 수업의 입문단계로 한국 규방공예의 배경과 역사, 규방공예 작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 바느질 수업 및 다양한 보자기의 완성과 사용법을 수업한다.

규방공예의 이해를 위한 수업에서는 규방소품, 한국 전통혼례 관련품 제작과 함께 수업에 쓰이는 한국 전통옷감의 구매방법을 익힐 수 있는 전통옷감시장의 규방공예 체험을 수행한다. 마지막 수업에는 이론적으로 배운 한국문화와 풍습이 실생활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국립민속박물관의 견학으로 과정을 마무리한다.

(2) 규방공예 수업 연구반 계획안

연구반 10회 수업은 조각보를 중심으로 한국 규방공예품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규방공예·문화비교 수업을 위주로 구성한다.

현대미술과 조각보의 비교, 서양 공예품과 조각보의 비교, 조각보 도안의 현대 생활용품의 활용 등의 수업은 보다 깊이 있는 규방공예·문화비교 수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다. 조각보 박물관과 인사동의 전통문화의 거리 체험수업 등과 완성된 개별 작품으로 전시회를 갖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표 V-11> 외국인 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 기초반 수업

회차	교육명	교육내용	수업영역/관련자료
1	규방공예 입문	한국 규방공예의 배경과 역사를 익힌다. 규방공예에 필요한 기초 바느질법을 학습한다.	규방공예 이해/규방공예 영문 소개지 (부록)
2	선물포장보	의례용 보자기의 쓰임새와 싸는 방법을 익힌다.	규방공예 이해/견본
3	다과보	덧는 용도의 보자기 쓰임새를 익힌다.	규방공예 이해/견본
4	오방색보	오방색 보자기의 쓰임새와 색의 의미를 익힌다.	규방공예 이해/견본
5	한국의 전통옷감과 문양익히기	한국 전통옷감의 종류, 쓰임새, 문양 등을 익힌다.	규방공예 체험/전통 재래옷감시장지도
6	혼례용 보자기 : 혼서지보	한국 전통 혼례의 과정과 혼서지보의 쓰임새를 익힌다.	규방공예 이해/혼서지
7	혼례용 보자기 : 기러기보	혼례의 절차중 전안례에 쓰이는 기러기보의 의미와 쓰임을 익힌다.	규방공예 이해/목기러기
8	주머니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이해하고, 주머니의 쓰임새와 만드는 법을 익힌다.	규방공예 이해/한복 사진, 주머니의 쓰임새 설명지
9	바느질 소품: 바늘꽃이, 골무	신부의 혼수준비물중의 하나인 바늘꽃이와 골무를 만들어 보고, 한국 전통혼례와 자국의 혼례를 비교하여 본다.	문화비교/자국의 혼례문화에 대한 자료
10	한국의 풍습과 보자기 쓰임새 알기	전통 복식 박물관을 방문하여 보자기의 옛 쓰임새를 익힌다.	규방공예 체험/국립민속박물관

<표 V-12>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 연구반 수업

회차	교육명	교육내용	수업영역 관련자료
1	조각보 : 조각보의 구성	조각보의 쓰임새와 종류를 익힌다. 옛 조각보 유물과 현대 미술구성 작품을 비교하고 색지를 이용하여 조각보를 구성한다.	문화비교/현대구성 미술품사진 조각보 유물사진 색지
2	조각보 : 약상보	약상보의 쓰임새와 바느질법을 익힌다.	규방공예 이해/견본
3	조각보 : 유물관람	한국 전통 조각보의 유물을 관람하고, 느낀 점을 토론한다.	규방공예 체험/조각보 박물관 방문
4	조각보 : 테이블러너	조각보의 문양을 이용한 테이블러너를 만들어 본다.	문화비교/견본
5	조각보 : 창문가리개	조각보 문양을 이용하여 창문가리개를 만들어 본다.	문화비교/견본
6	조각보 : 악세사리	조각보를 기본 개념으로 한 악세사리를 제작한다.	문화비교/전통장신구 사진
7	조각보, 생활용품 관람	조각보를 모티브로 한 생활용품과 공예품을 견학한다.	규방공예 체험/ 장소지도
8	궁보 만들기	궁중에서 쓰던 보자기의 특징과 쓰임새를 알아본다.	규방공예 이해/궁보 사진
9	여의주 문보 만들기	여의주문보와 켈트의 성당창문의 패턴을 익히고, 여의주문보를 제작한다.	문화비교/도안비교용 사진
10	한국의 규방공예 와 자국의 공예 비교 발표	각자 만든 규방공예 작품의 전시 및 자국의 공예품을 비교한다. 자국의 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조각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토론한다.	문화비교/작품전시회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규방공예(조각보)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 10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에 대한 경험, 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요구도를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규방공예(조각보) 교육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에 체류하게 된 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규방공예(조각보)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는 수강 전부터 공예나 바느질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수공예품, 특히 조각보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수강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자료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외국어로 된 출판물이나 인터넷 사이트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아쉬워하였다. 간헐적인 규방공예 전시회 및 작품전 외에 우리 전통문화의 확고한 한 분야로서 규방공예를 알리기 위해서는 외국어 출판물의 개발과 인터넷 사이트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둘째, 규방공예(조각보)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을 기억하기 위하여’ 혹은 ‘한국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답하였다. 이는 대상자들이 규방공예 수업을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라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교육 목적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외국인 수업교재 개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이다.

셋째,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조각보와 관련된 역사적 지식과 배경이 외국인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주제로 조사되었으며, 조각보와 관련된 바느질 기법과 재료의 선택 등이 수업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도 있게 배우고 싶은 주제로는 작품과 관련된 한국의 풍습과 문화, 조각보의 예술성 등이 꼽혔다. 그 외에도 수업과 관련된 장소의 방문, 동호회나 전시활동 등 단순한 공예품의 제작 외에도 한국문화를 직접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어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의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조각보)의 교육에는 용어 및 표기법의 통일화와 역사적 배경이나 관련된 문화의 스토리텔링 수업 개발, 그리고 외국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규방공예수업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연구대상자들은 교육시간은 한 과목당 1-2주, 1회에 2~3시간의 소규모 수업이 적당하다고 답하였다. 규방공예(조각보)강사의 자격에 대하여는 좋은 성품, 언어능력, 전문지식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효과적인 수업에 필요한 강사의 성품에 대해서는 인내심, 수강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능력을 꼽았으며, 강의 시 보조도구로는 사항은 수업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견본, 영어교안, 인터넷 자료 등이 요구된다고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자는 규방공예(조각보) 수업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익히는 매개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방공예 이해’, ‘규방공예 체험’, ‘규방공예·문화비교 수업’이라는 세가지 영역의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세가지 영역의 수업을 수강생이 자신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반과 연구반으로 나눈 수업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제한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한계가 있으며, 더욱 일반화된 강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상기의 미비점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규방공예 수강자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안 설계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단순한 작품완성 위주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다양한 매체의 교재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규방공예품(조각보)의 외국 소장실태의 파악과 소장경위, 제작년도 등 유물에 관한 상세한 정리와 분석을 통해 향후 전통문화 연구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인들의 규방공예 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 문화교육 모델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언이 우리전통 문화의 전파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은영(1989). 전통매듭. 서울:대원사.
- 김정호·이미석(2005). 천연염색과 규방공예. 대전:한남대학교 출판부.
- 김지영·김문진(2000). 규방공예. 서울:컬처라인.
- 김현희(2000). 보자기. 서울:서울문화재보호재단.
- 김현희(2009). 아름다운 우리 전통보자기 만들기. 서울:미진사.
- 남상민(2003). 한국전통혼례. 서울:도서출판 예학.
- 민길자(1997). 전통옷감. 서울:대원사.
- 박광훈·이민주(2005). 침선장 박광훈의 오방색 아이옷. 서울:다섯수레.
- 손영학(2001). 한국인의 숨씨. 서울:다흐미디어.
- 안명숙·김용서(1998). 한국 복식사. 서울:예학사.
- 유송옥(1998). 한국 복식사. 서울:수학사.
- 이용숙, 김영천(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교육과학사.
- 이정혜(2011). 규방공예, 한땀의여유. 서울:팜파스.
- 이종남(200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천연염색. 서울:현암사.
- 조주상(2009). 우리규방 이야기. 서울:글을읽다.
- 조효순(1987). 생활한복. 서울:계몽사
- 조효순(1989). 복식. 서울:대원사.
- 한영화(1989). 전통자수. 서울:대원사.
- 허동화(2004). 이렇게 소중한 보자기 역사. 서울:한국자수박물관.
- 허동화(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서울:한국자수박물관.
- 허동화(200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 서울:현암사.

- Geelhaar, Christian(조정옥옮김).(1995). 파울클레의 삶과 예술. 서울:책세상.
- Pederson, P.(1988). A Handbook for Developing Multicultural Awareness. Alexandria, VA, US: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30 pp.
- Son,Yeong Hak(2004). Handicrafts of the Korean People. Seoul: Dahal Media. Inc.
- Yang,Sunny(1997). Hanbok : The Art of Korean Clothing. New Jersey: Hollym International Corp.

학위논문

- 권정은(1996). 조선 조각보의 문양에 나타난 추상성-현대 추상회화와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2012). 자기 주도적 규방공예 학습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설계 및 구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영(2005). 전통 조각보의 문화콘텐츠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주(2011). 조각보의 조형성을 응용한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영실(2006). 외국인의 한국예절·다도 교육에 대한 요구 연구-서울 소재 대학내 한국 어교육기관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성희(2009). 전통공예 교육현황과 활성화 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통미술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박물관 교육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경은(2003). 조선후기 여성들의 삶과 보자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명자(201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 경험 및 요구 연구-예절과 의례교육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연수(2012). 외국인 대상 박물관 교육의 총체적 접근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자영(2008). 전통조각보의 조형성을 기초로 한 미술수업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근영(2008).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林娜(2012). 재한 중국유학생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정임(2004). 한국의 전통미와 규방공예의 현대적 이해-텍스타일 디자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경숙(2012).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한국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학회지

김영친(1997). 질적연구의 지적 전통과 그 예 : 문화기술지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교육학연구, Vol.35 No.1, 225-251.

박희순·이혜자(2008). 천연염색과 조각보 만들기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및 적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20 No.2, 61-73.

서영실·최배영(200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예절·다도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연구-성신여자대학교 외국어 교육원생들을 중심으로. 성신여

- 자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학회지, 2권, 5~19.
- 양민정(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Vol.9 No.4, 101-126.
- 이성미(2000). 전통문화의 세계화. 정신문화연구. Vol.23 No.4, 55-78.
- 이연순(2007). 한국규방공예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모색.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Vol.2007 No.6, 140-143.
- 이연순(2008). 한국규방 공예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모색. 한국복식학회지, Vol.10 No.3, 111-126.
- 한은혜(2011). 조선시대 조각보에서 유형의 분류와 그리드의 구성자질 고찰. 한국조형디자인학회지, 630호, 54-73.
- Berry, J. W.(1991). Understanding and Managing Multiculturalism.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3, 17-49.
- Miller, A. M., Sorokin, O., Wang, E., Feetham, S., Choi, M. & Willbur, J. (2006). Acculturation, Social Alienation, and Depressed Mood in Midlife Women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9, 134-146.

인터넷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 금산자수연구소. www.gms.pe.kr.
- 누비문화연구원. www.nubi107.com.
- 동양자수박물관. www.orientalembroidery.or.
- 미국LA카운티미술관. www.lacma.org.

미국메트로폴리탄미술관. www.metmuseum.org.
미국보스턴미술관. www.mfa.org.
미국브루클린박물관. www.brooklynmuseum.org.
미국샌프란시스코아시안미술관. www.asianart.org.
미국스미스소니언국립자연사박물관. www.si.edu.
미국시애틀아시안미술관. www.seattleartmuseum.org.
미국포틀랜드미술관. www.portlandartmuseum.org.
미국프리어갤러리. www.asia.si.edu.
미국피마디에섹스박물관. www.pem.org.
미국휴스턴미술관. www.mfah.org.
삼청각. www.samcheonggak.or.kr.
서울시농업기술센터. www.agro.seoul.go.kr.
서울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kr.
숙명여자대학교정영자수박물관. www.chungyoungyang.com.
용인시농업기술센터. www.yatc.or.kr.
자연염색박물관. www.naturaldyeing.net.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
한국매듭연구회. www.koreaknots.net.
한국문화센터연합회. www.hanc.co.kr.
한국자수박물관. www.bojagii.com.
한국전통공예문화진흥원. www.kcpf.or.kr.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www.kpicaa.co.kr.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rean Women' s Handcraft for Foreigners

Kim, HyoJoo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based on the result from an in-depth interview with ten foreign students who either are attending or have attended a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cla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ubjects' interests and experience, and their demands for Korean women's handcraft(Bojagi) classes in order to find ways to improve the method for Korean women's handcraft(Bojagi) education.

For the study,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applied through which the subjects' knowledge, learning experience, and opinions on Korean women's handcraft(Bojagi) were collect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was shown that the subjects had a high interest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particularly in women's handcraft, pottery making,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 and Korean traditional customs. Most subjects thought Bojagi was similar to Western quilts,

and did not have any knowledge about Bojagi before their came to Korea. Most of the subjects answered that they searched information on Bojagi through the Internet and through books, but we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s. The main reason that the subjects took Korean women's handcraft(Bojagi) class was to learn more about Korean culture.

The subjects also listed their most interesting and difficult aspects about the class. The subjects answered that learning the history behind Bojagi, and the class field trip were the most interesting aspects of the class. Sewing techniques and speed, and material selection were the most difficult parts of the class. The subjects wanted to learn more about Korean customs and culture, and values of Bojagi. Furthermore, the majority of subjects wished for a chance to enrich their experience with Bojagi through visiting places related to Bojagi, joining a Bojagi sewing group, and participating in a Bojagi exhibition. For the duration of class, 12 weeks for a course and 2 to 3 hours per class were most preferred. Regarding the class size, a small class was preferred and regionally, Kangbŭk was favored. The students listed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a lecturer to have a 'good'-patience, caring, and communicative-personality, English language ability, and professional knowledge of Bojagi. In addition, the subjects required Bojagi samples, instructions in English, and research data from the Internet for auxiliary lecture materials. Lastly, they expressed the need for bright lighting, chairs, and tables for an effective study space.

Based on these opinions, the instruction plan was designed into three parts: 'Learn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Korean Culture in Comparison', to ultimately make a Bojagi

class for the purpose of familiarizing oneself to traditional Korean culture. Moreover, these three parts were further divided into basic and advanced levels.

Until now,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about education for foreigner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present basic information on how current Bojagi classes are operating,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부 록 목 차

<부록 1> 연구대상자의 기본내용

<부록 2> 연구대상자의 기본내용(영문)

<부록 3> 외국인의 한국 전통규방공예 인식과 요구도 조사 설문지

<부록 4> 외국인의 한국 전통규방공예 인식과 요구도 조사 설문지(영문)

<부록 5> 규방공예 설명서(영문)

<부록 6> 규방공예 용어 정의표(영문)

<부록 7> 규방공예 기초반 수업안내서(영문)

<부록 8> 규방공예 연구반 수업안내서(영문)

<부록 9> 논문에 언급된 보자기의 명칭과 용도

<부록 1> 연구대상자의 기본내용

기본내용

1. 귀하의 국적은 ?
2. 귀하의 성별은 ?
3. 귀하의 나이는 ?
4. 귀하의 결혼 유무 ?
5. 귀하의 학력은 ?
6. 이번에 귀하가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
7. 귀하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

<부록 2> 연구대상자의 기본내용(영문)

Basic Information

1. What is your nationality?
2. How would you describe your sexual orientation?
3. How old are you?
4. What is your marital status?
5. What is your level of education?
6. What is your purpose of visiting Korea?
7. How long are you staying in Korea?

<부록 3> 외국인의 한국 전통규방공예 인식과 요구도 조사 설문지

외국인의 한국 전통 규방공예 교육에 관한
인식과 요구도 조사 설문지

본 설문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합한 전통 규방공예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위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외국인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 응답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3. 1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지도교수 : 주영애
연구자 : 김효주
darmy61@gmail.com

1. 한국 전통문화 · 한국 전통공예에 대한 관심

1-1. 귀하의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1)매우 높다 2)높다 3)보통이다 4)낮다 5)전혀 관심이 없다.

1-2. 귀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전통문화는 어떤 분야입니까?

1-3. ‘한국의 공예’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구체적인 분야는 무엇입니까?

2.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경험과 관심

2-1. 귀하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규방공예(조각보)를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까?

2-2. 한국의 조각보를 연상하게 하는 공예품이 귀하의 나라에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귀하는 한국의 규방공예중 하나인 조각보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찾아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알아 보셨습니까?

2-4. 귀하가 찾은 자료가 규방공예(조각보)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2-5. 한국의 규방공예(조각보)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를 얻고자 할 때 주로 어떤 경로 혹은 매체를 이용할 예정입니까?

3. 규방공예(조각보) 교육 수강 경험과 인식

3-1. 귀하는 과거에도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까?

3-2. 귀하는 어떤 경로로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을 수강하게 되었습니까?

3-3. 귀하께서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을 수강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3-4. 규방공예(조각보) 교육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3-5. 규방공예(조각보) 교육 이외에 배우고 싶은 한국의 전통공예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 규방공예(조각보) 교육 운영에 대한 요구

4-1. 귀하가 원하는 한과정당 교육기간은 몇 주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4-2. 귀하가 원하는 일회당 수업시간은?

1주 회 1회당 시간

4-3. 귀하가 원하는 수업장소는?

4-4. 귀하가 원하는 수업 방식은 ?

① 1 : 1

② 소규모 그룹

③ 단체 수강

④ 1회성

4-5. 규방공예(조각보) 수업방식에서 강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4-6. 규방공예(조각보) 강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5. 규방공예(조각보)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5-1. 규방공예(조각보) 수업내용 중 가장 흥미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5-2. 규방공예(조각보) 수업내용 중 가장 어려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5-3. 규방공예(조각보) 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4. 규방공예(조각보) 교육과 관련된 다른 활동에 참여의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활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부록 4> 외국인의 한국 전통규방공예 인식과 요구도 조사 설문지(영문)

The Survey About Foreigners' Awareness and Demand for the Education of Korean Women's Handcraft(Bojagi)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investigate appropriate ways to teach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to foreigners who reside in Korea.

The survey will be only used for the purpose stated above and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s.

Your answers will be used for the educational development for foreigners.

Thank you for your time to answer the survey questions.

2013. 1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Ju, Young Ae

Researcher : Kim, Hyo Joo

darmy61@gmail.com

1. Interests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Korean Traditional Handicraft

1-1. How interested are you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 1) Very high 2) High 3) Neutral 4) Low 5) Not interested at all

1-2. What aspects of Korean culture are you interested in?

1-3. What is a specific Korean traditional cultural aspect that comes into your mind from the term 'Korean handicraft'?

2. Experience and Interest in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2-1. Have you ever seen or experienced making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before you came to Korea? If yes, how did you get to know about it?

2-2. Is there any artistic handicraft that brings up the image of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in your country? If yes, describe the artistic handicraft in detail.

2-3. Have you ever searched information about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If yes, through what means?

2-4. Did your research help you reach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2-5. What means do you plan to use further search on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3. Korean women's handcraft(Bojagi) Class Experience and Awareness

3-1. Have you ever taken another class on Korean women's handcraft(Bojagi)?

- 3-2. How did you get to know about this class on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 3-3. What is the purpose of taking this class on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 3-4. Would this class on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be helpful in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If yes, why?
- 3-5. What other Korean traditional handicrafts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other than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4. Demand on Educational program

- 4-1. How many weeks do you think is the most suitable for the class?
- 4-2. How long would you want one lecture to be?
days/week hours/lecture
- 4-3. Where do you prefer the class to be at?
- 4-4. Which class system do you prefer?
- 1) One to one
 - 2) Small class
 - 3) Large lecture
 - 4) One time class
- 4-5.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requisite that is demanded for the lecturer in teaching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 4-6. What props do you think are needed for more efficient lectures on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5. Demand on Educational Contents of Korean women's handcraft(Bojagi)

- 5-1. What is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this class on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 5-2. What is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is class on Korean women's handcraft(Bojagi)?
- 5-3. What do you think might be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that should be discussed in class?
- 5-4. Are you willing to participate in other activities related to Korean women's handcraft (Bojagi)? If yes, what kind of activities would you participate in?

<부록 5> 규방공예 설명서(영문)*

The Origin of Gyubang Gongye

In ancient Korea, men and women were considered equal. This situation continued even through the Goryeo Dynasty (AD918~1392).

A Goryeo woman was entitled to equal inheritance, allowed to remarry and would visit powerful government officials to help advance her husband's political status. After the Goryeo government was overthrown, this system came under severe criticism and a male-dominated hierarchy based on Confucianism was implemen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D1392~1910), a woman was prohibited from visiting people other than close family. A Joseon woman was forbidden from even glancing at a man who was not her husband, and when leaving her house, she had to cover herself from head to toe or be hidden from view in a carriage carried by servants. This strict code of conduct carried over into a married couple's living arrangements. A husband and wife had separate living quarters. The husband's room was located across from the outer yard and the wife's room at the back of the house, next to the kitchen. The wife was not permitted to visit her husband at her free will. A Joseon woman's daily activities were limited to her quarters. Females were not allowed formal education and therefore could not study poetry, literature or art. Everyday activities such as cooking and housework made life very monotonous and isolated. The only creative outlet for a Joseon woman was her sewing and embroidery.

This is the origin of the Gyubang Gongye(Handicrafts of traditional Korean women's living quarters) and Korean folk handicrafts.

* 출처 : 외국인 규방공예 수업자료 (김효주)

<부록 6> 규방공예 용어 정의표(영문)*

Examples of Gyubang Gongye

Some examples of folk handicrafts made in a Korean woman's home are Hanbok(traditional clothing), embroidery, Bojagi(wrapping cloth) and accessories. Folk handicrafts were considered necessities and a Korean woman was required to know how to make them. A Korean woman put much time and effort into making these handicrafts. They were not just useful objects but rather symbols of her hopes and dreams. Eventually the making of these necessities evolved into a beautiful art form. Unfortunately the combination of Western influences and Korean women entering the workforce have caused this artistic legacy to gradually fade away. These days Koreans realize the value of their cultural heritage and are trying rediscover their precious past by learning how to make Korean folk handicrafts. Taking the time to sew in the traditional manner of our ancestors is an excellent way to reflect on ourselves during these busy modern times.

* 출처 : 외국인 규방공예 수업자료 (김효주)

<부록 7> 규방공예 기초반 수업안내서(영문)*

Bojagi Class Schedule(Beginning Course)

Week	Item
1	Basic Stitches Pin Cushion
2	Side Dish Cover
3	Side Dish Cover Embroidered Wrapper
4	Embroidered Wrapper
5	Tea Cup Pouch
6	Tea Cup Pouch
7	Main Dish Cover
8	Main Dish Cover
9	Ramie Wrapper 1
10	Ramie Wrapper 2
11	Dongdaemoon Market Tour

* 출처 : 외국인 규방공예 수업자료 (김효주)

<부록 8> 규방공예 연구반 수업안내서(영문)*

Bojagi Class Schedule(Advanced Course)

Week	Item
1	Wedding Wrapper for Wooden Goose
2	Myungju Square Bojagi
3	Myungju Square Bojagi
4	Flower Shaped Pin Cushion
5	Kapsa Bojagi
6	Kapsa Bojagi
7	Ramie Runner
8	Ramie Runner
9	Ramie Bojagi
10	Ramie Bojagi
11	Bojagi Museum Tour

* 출처 : 외국인 규방공예 수업자료 (김효주)

<부록 9> 논문에 언급된 보자기의 명칭과 용도*

명칭	용도
후리보	여행할 때 어깨나 허리에 걸치는 보자기
덧개보	작은 물건을 보존하는 상자를 덧싸는 용도의 보자기
기러기보	혼례 때 나무기러기를 싸서 예식에 사용하는 보자기
강보	어린이를 덮거나 업는 데 쓰는 작은 이불형태의 보자기
목판보	음식을 보관하거나 나르는 목판을 덮는 보자기
상보	음식을 차려놓은 상을 덮는 보자기
탈보	전통탈놀음에 쓰이는 탈 뒤에 매달아 얼굴을 여미는 용도의 보자기
함보	함을 싸는 보자기로 운반시 함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자기
보부상보	보부상(보따리 장수)이 팔 물건을 싸서 갖고 다닐 때 사용하는 보자기
연길보	정혼의 표시인 예장지와 채단을 함에 넣을 때 싸는 보자기
폐백보	신부가 시댁 어른께 신혼인사를 드릴 때 음식을 싸가는 보자기
예단보	신부가 시댁 어른들께 드리는 선물을 싸는 보자기

* 출처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허동화,1977)
다음 국어사전(dic.daum.net)